

3  
2022  
VOL. 309

#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ARE YOU  
READY FOR  
TOMORROW



Korea Desk 021-2078-5877

<http://www.kiwoom.co.id>

**KIWOOM**  
SEKUR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내일에 투자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가 함께 합니다



SCAN THE QR CODE TO FOLLOW US ON SOCIAL MEDIA AND DOWNLOAD OUR KIWOOM HERO



Treasury Tower 27F, District 8 Kawasan SCBD Lot 28,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12190

T. 021-5010-5800 | Korea Desk 021-2078-5877

# Experience Hyundai CRETA.

## CRETA 출시



# Test drive now.

※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SCBD Lot 19, Senayan, Jakarta Selatan) 및 가까운 쇼룸에서 시승하실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암레스트 공기 청정기



현대 스마트센스



myHyundai Indonesia  
멤버십 가입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혜택을 즐겨보세요.

### 현대 블루링크



안전 보안  
- 긴급 출동  
- 도난 추적



차량 관리  
- 차량 진단  
- 운행 정보



알림 기능  
- 지역/속도/시간  
- 제한 알림 설정



원격 제어  
- 시동/공조 제어  
- 차량 위치 확인

### 현대 오너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 잔존 가치 3년 70% 보장
- 출고 후 1년 이내 전손시  
신차 교환
- 3+1년/10만km 보증 수리

### 특별 금융 프로그램

- 유예 할부 (~3년)
  - 월 납입금 최저 3,5 Juta
  - 차량 가격 50% 만기 시 상환  
(협의 후 2년 분할 상환 가능)
- 특별 선수금 할부 (~5년)
  - 구입시 차량가격 10%만 납부

※ 금융상담 (신한은행) : 1500881



계약 신청



시승 신청

Apple 앱스토어, Google 플레이에서  
'myHyundai Indonesia'와 'Hyundai Bluelink'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 가격 및 기타 상세내용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참조





# LION METAL WORKS

## LIONTRAY® CABLE SUPPORT SYSTEMS

### \*제품군

- Cable Tray (System)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 Wire Mesh (용접철망)
- Fence (철재 펜스)
- Racking System (창고용 랙 시스템)
- Truss (지붕 트러스)
- Steel Door (철문)
- Fire Door (방화문)

### \*Office Equipment (사무용 가구)

- Filing Cabinet (파일 캐비닛)
- Steel Cupboard (철재 식기장)
- Lion Chair (의자)
- Lion Panel (사무실 파티션)
- Mobile File (이동식 문서보관함)

### \*Lion Safe

- Fireproof Filing Cabinet (방화 문서함)
- Fireproof Safe (방화 금고)

## 라이온 공단 입주 안내 LION INDUSTRIAL PARK

### Prime Location

LION INDUSTRIAL PARK

Location in the Mega Intersection connects to The capital city of Jakarta, Bandung, Cirebon, Semarang, Jogjakarta and Surabaya

### INFRA STRUCTURE AND UTILITIES

#### ELECTRICITY

Electricity supply by PT. PLN (Persero)  
Capacity : 50 Megawatts  
Voltage : Less than 220 KVA: 380 Volts

#### TELECOMMUNICATION

The Telephone Line  
directly from PT. TELKOM

#### Water

Future will be piped from PDAM  
(Perusahaan Daerah Air Minum)

#### NATURAL GAS

Natural Gas is available provided  
by PGN

#### LION INDUSTRIAL PARK

Jl. Raya Sadang Subang Km 12.5  
Purwakarta, Jawa Barat Indonesia

### 40Ha 부지 정리 완료

한국인(한국기업)  
담당 : Mr. Loh

HP : +62816897460  
E-mail : ytlohea@gmail.com



멀티그룹에서 한국교민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멀티그룹의 6,200여명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전문인력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의 각종 산업현장 및 건설현장에서 활약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 현지전문가들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https://multigroup.co/>



각종 외주화 지원



내수운송



경비 / 안전지원



하역/화물운송



중장비 임대 / 렌터카



생석회 / 소석회 생산공급



주차관리시스템



PT. LINTAS SAMUDERA INTERNUSA  
Stevedoring and Freight forwarders



PT. MULTI LINTAS PERSADA  
GENERAL KONTRAKTOR & SUPPLIER



PT. MULTI TALENT UNIVERSAL  
Outsourcing Services



PT. DEKADE PRIORITAS  
Trucking  
Hoisting Equipment  
Rent Car



PT. SECURINDO GARDA PERKASA  
Security & Safety Services



百年顧客



## hotel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I - 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Bunker Caf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Restaurant



Sauna & Spa



Money Changer

###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인도네시아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지정 호텔 '자바 팔레스'**

힘들고 지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이 내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월간 한인뉴스 3 2022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 contents

2022. 3. 통권 309호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8

한인회, 자가격리 지원키트 배송

10

한인회, 한인동포 대상 3차 코로나19 예방추가접종 4차 실시

11

산업통상부장관 방인, 기업인 간담회 개최

12

제 20대 대통령선거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투표 종료



표지사진: 투표소 나들이  
2월25일

- |  |  |
|--|--|
| 14 신성철 논설위원칼럼 - 조코위 '오토바이'로 본 인도네시아<br>시대정신              | 38 나와 의 약속 2 <김태훈>                             |
| 16 김재훈의 '세무 TALK' -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에 대한<br>과세규정              | 41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정창훈>                      |
| 18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51- 독재자의 길                           | 44 열두 달의 식물칼럼 - 하지 않고 있을 수 없었니까 할 수밖에<br><권영경> |
| 22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 47 삼시세끼는 언제부터 <정연식>                            |
| 26 문법왕 <민선희>   | 50 행복에세이 - 스마트 시대의 질문과 답변 <이재민>                |
| 30 자카르타 맛집탐방 - Sir Loin <주윤지>                            | 52 미냇까유뿌띠 <김선혜>                                |
| 32 책이 답하다 10 - 정화, 인도네시아 화인의 수호신에서<br>자바의 이슬람 전파자로 <조연숙> | 56 위기의 자카르타 <임서영>                              |
| 36 두 개의 시선 - 마음 돌보기 <헬렌>                                 |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07) <이승민>                       |
|  | 60 편집장모니터 - 먹고 사는 이야기 <홍석영>                    |
|  | 68 생활정보  |

# 협력하는 한인사회 함께라면 COVID-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 한인회, 한인확진자에게 자가격리 지원 키트 배송

2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한인 확진자 수는 2월10일 전후의 정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양성 확진자 PCR 결과지, 영문이름, 연락처, 주소를 대사관이나 한인회에 신고하면 한인회는 격리에 필요한 물품, 식품, 구급의료 키트를 확진자의 집으로 배송하여 치료에 집중하도록 후원하고 있다.

올해 들어 2월28일까지 신고 확진자(지역한인회 포함)에게 466세트가 배송되었다.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 재택근무의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스스로를 방역하는 것이 최선이다. 양성확진 후 몸상태에 따라 9일 이내 재검하고 음성여부를 알려야 한다.

(한인회: 0812 1960 308, 대사관: 0811 852 446)







## 2월 한인회, 코로나대응팀의 하루

한인회 사무국은 출근과 더불어 시작되는 확진자 신고 접수와 각종 코로나 관련문의에 응대하고 매일 대사관 코로나 담당 류완수 영사와 회의하여 한인사회 코로나현황을 업데이트 한다.

의료키트에 들어갈 자가격리 구급의료약품을 갯수에 맞게 작은 병에 소분하여 담고 의료키트가 구성되면 안내문, PCR 검사바우처와 함께 가방에 넣는다. 의료구급키트와 대사관에서 준비한 식품 등을 박스에 담아 신고한 자가격리자들에게 배송한다.



## 한인회, 한인동포 대상 3차 코로나19 예방 추가접종 4차 실시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월 12일(토), 한인문화회관(코리아센터 옆 건물/ Jl. Gatot Subroto)에서 3차 코로나 예방 추가접종을 실시했다.

지난 11월 30일에서 12월 1일, 양일의 추가접종 수요조사를 거쳐 한인회의 요청으로 인니 관계당국의 도움을 받아 긴급히 성사된 1,2,3차에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해 1차(12월 24일)에 250명, 2차(12월 30일) 275명, 올해 3차(1월 22일) 320명에 이어 4차 311명으로 총 1,156명의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부스터 샷을 진행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추가접종을 실시할 때마다 많은 신청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부스터샷을 원하는 한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니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 생생한 현지 산업계 동향·애로사항 경청 및 정부 지원 의지 표명

인도네시아에 방문 중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21(월), 물리아 호텔에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문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박재한 한인회장, 송창근 재인니 KOCHAM 회장, 김현준 지상사협의회장, 이성권 중소기업협의회 부회장, 김동석 재인니한국봉제협회 사무총장, 김영철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장, 서준형 OKTA 인니지회 사무총장, 승범수 KORINDO 수석부회장, 이호덕 로얄 수마트라 회장, 이영택 현대자동차 아태권역본부장, 김광무 POSCO 법인장, 이창현 LX International 총괄, 김태영 SK E&S 인니 법인장, 황대규 금융협의회장, KO-TRA 이종윤 관장 등 현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 장관은 우리 기업인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지 산업계 동향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협력·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물류산업과 천연자원(팜오일·산림·광물 등)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확대,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양국 간 탄소배출 저감 협력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경영을 위한 발전적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문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인도네시아 관계 장관들에게도 전달할 것을 약속하였다.

요소·석탄을 포함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비롯하여, 인니 정부에 대한 수입 규제(쿼터, 강제인증(SNI), 자국산부품 사용의무(TKDN) 등) 완화 및 세제 개정 요구, 코로나 상황 속 안정적 물류 및 인력·기자재 확보 협의 등이다.

문 장관은 “그간 신남방정책 추진의 결과, 양국 간 교역액이 약 30% 증가하고, 최근 현대차 완성차 공장 건설, LG 컨소시엄의 그랜드 패키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바,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공: 대사관)



## 제 20대 대통령선거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투표 종료



2월 24일, 대사관 강당

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투표를 지난 2월 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엿새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Jl. Gatot Subroto, Jakarta) 강당에서 실시됐다.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에 마감

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고로 등록을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2월 24일 자카르타에 사는 한 유권자는 “한표를 행사하면서 무엇보다 함께 잘사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투표 참여의 소감을 전했다.



2월 23일, 투표하는 박태성 대사 부부 첫 투표자, 채만용 땅그랑반튼한인회장



## 조코위 ‘오토바이’로 본 인도네시아 시대정신



논설위원 신성철

최근 우리나라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며, 오토바이를 타는 대통령으로 떠올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서 오토바이를 탄 조코위 대통령의 모습은 말그대로 압권이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대역을 써 연출했다고 금방 눈치챘겠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열광했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화제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조코위 대통령이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리는 자카르타 봉까르노 경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출발한다. 뺨뚫린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다가 자카르타의 만성 교통체증에 갇힌 조코위 대통령은 의전용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이 타던 오토바이로 갈아탄 후 헬멧을 쓴 다음 마치 액션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중 곡예를 펼친다. 좁은 골목길을 가다가 바자이(소형삼륜차택시)와 충돌할 뻔한다. 이어 초등학생이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해 학생들을 먼저 건너도록 배려한다. 경기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한 후 실내의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귀빈석에 깜짝 등장한다. 대역 스티트맨과 미리 찍은 영상을 편집한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개인 소유의 녹색 맞춤형 오토바이(Kawasaki W175)를 몰고 롬복섬 만달리카 지역에 개장한 ‘만달리카 서킷’ (Mandalika Circuit)에서 장관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시험 주행을 했다. 올해 3월 18일부터 열리는 MotoGP 월드챔피언십 인도네시아 라운드를 홍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부흥시킨다는 목적이다. 지난 2월에는 북부수마트라 또바호수 지역을 오토바이를 타고 방문해 주민들에게 현금보조금을 직접 전달했다. 2019년 12월에는 말레이시아에 인접한 북부갈리만탄 주 끄라얀 지역의 국경도로를 오토바이로 시찰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집계된 오토바이 대수는 1억1천만대가 넘는다. 오토바이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대중적이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국립연구혁신국(BRIN) 와시또 라하르조 정치전문가는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모터사이클을 탄 모습은 자바 전통에서 말을 탄 기사를 상징한다. 즉 오토바이를 탄 조코위 대통령은 기사도정신을 가진 확신에 찬 리더라는 것을 상징한다”며 “동시에 라이더의 모습은 정치지도자의 이미지를 허물고 보다 편안하게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명문 정치가문 출신이거나 재벌가 출신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조코위에게 인도네시아 서민과 중산층들은 친근감을 느낀다. 정치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중소 규모의 가구사업가 조코위는 2005년에 중부자바주 솔로시장에 출마, 36%를 득표해 힘겹게 당선된다. 부패가 만연한 행정을 뜯어고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불시현장방문(blusukan)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행정개혁을 단행했다. 시내 중심가 도로를 장악해 교통과 미관을 해치는 노점상들과 수십 차례 면담을 통해 새 유통센터로 이전시키는 등 대화와 설득을 통한 행정력을 보여주었다.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조코위는 2012년에 자카르타 시장에 당선돼 특유의 발로 뛰는 지도자로서 중형무진하면서 큰 성과를 냈다. 이어 대중적인 인기가 급상승한 조코위는 2014년에는 투쟁민주당(PDIP) 대통령 후보가 되어 명문가 출신인 뿌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와 맞붙어 대권을 거머쥘다. 조코위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며 민생을 챙기면서 높은 인기를 얻어 2019년에 뿌라보워 후보와 다시 격돌해 연임에 성공한다.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알리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공식 계정의 팔로워는 각각 4천500만명과 1천만명으로 집권 8년차에도 대통령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으나, 친서민정책을 통해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은 2019년 4월에 71.4%에서 2020년 10월 68.8%로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쓴 8개월이 포함됐음에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 사이폴무자니연구소(SMR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은 2021년 9월에도 68.5%로 여전히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조코위가 대체로 선방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코위 대통령의 정권연장을 위해 삼선 개헌설이 술술 나오면서 반발도 거세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개헌설을 부인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민주주의 발전, 부패척결 및 인도네시아 정계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과두주의적 이해관계를 타파해 주길 기대했다. 지금까지 조코위 대통령의 실적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코위 정권에서 과두정치가 되려 강화됐고 야당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2014년과 2019년 선거에서 상대편 대권후보로 나섰던 뿌라보워 그린드라당 총재를 현 국방장관으로 영입해 강력한 야당이었던 그린드라당을 여당연합에 끌어들였다. 작년 8월에는 또 다른 야당인 국민수권당(PAN)까지 연정에 끌어들이므로써,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 의석 575개 중 82%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여당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야당 지위를 유지하는 정당은 민주당과 변영정의당(PKS)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탄생한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나 1945년 독립선언 이후 21년에 걸친 수카르노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이어 정권을 이어받은 ‘개발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수하르토 대통령은 산업화를 이끌었으나 32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부정부패와 인권탄압으로 얼룩졌다. 민주화와 개혁시대를 맞아 인도네시아 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선출된 유도요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G20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통을 이어받은 조코위 대통령은 1기 임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2기 임기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동부칼리만탄으로 신수도 이전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역대 인도네시아 대통령들은 각자 처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한 단계씩 성숙시켜왔다. 차기 대선이 예정된 2024년은 인도네시아 지도자에게 어떤 시대정신을 요구할까? 이를 간파하는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끝)



#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에 대한 과세 규정

글: 김 재 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금년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되는 Natura(현물) 및/또는 Kenikmatan(향응)는 과세 대상이 된다. 작년까지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 골프 멤버십 등 회사가 제공한 이러한 현물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비용부인)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 개인 소득에 포함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서 지난번 1월 급여에 대한 갑근세(PPh21) 신고부터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에서 법무부(Kementerian Hukum dan HAM)와 최종 조율중으로 조만간에 공포하겠다고 하지만 이번 원고 마감일 현재까지는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작년 10월 29일 발효된 조세조화법(UU No.7/2021 tent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PP))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강조하였다. 특히 개정된 현물 제공에 대한 개인 소득세 부과에 아래의 예시로 홍보한 바 있다.

A씨는 회사의 간부로 급여는 최소로 받고 있지만 회사로부터 고급주택, 고급차량, 골프멤버십등 편의를 제공받고, B씨는 급여와 상여 이외에는 제공받는 것이 없다고 할 경우, A씨는 편의를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고, B씨는 더 무거운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것이어서 공정 과세 차원에서 이러한 현물 및 향응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공정 과세에 대한 모순, 적용 시점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었다.

예를 들어 C씨는 회사가 구입한 아파트와 회사가 구입한 차량을 제공받았고, D씨는 회사가 장기임대 아파트와 회사가 장기 임대한 차량을 제공받고, E씨는 회사가 단기 임대한 아파트와 단기 임

대한 차량을 제공받은 경우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아파트 또는 동일 차종이지만 회사가 구입한 것을 제공 받는 경우와 회사가 장,단기 임차한 것을 제공 받을 경우 적용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결산일은 12월이 아니고 3월이나 6월 결산일인 경우 이번 규정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번 결산일은 2021년 사업연도로 HPP 적용에 대한 시점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개정된 HPP는 공정한 과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과거 법인세율이 25%였고 개인소득세는 누진제로 최고 30% 였기 때문에 손금불산입(비용부인)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인건비로 처리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어서 세수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지만, 2020년부터 법인세율은 22%로 인하되었고 개인소득세는 금년부터 최고 소득세율이 35%까지 인상되기 때문에 세수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위와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현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현물과세에 대한 예외 조항도 HPP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모든 직원을 위한 음식, 식료품, 음료 재료 및/또는 음료. 둘째,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는 현물 및/또는 향유. 셋째, 고용주가 작업을 수행할 때 제공해야 하는 현물 및/또는 향유 넷째, APBN, APBD 및/또는 APBD에서 조달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현물 및/또는 향유. 다섯째, 특정 유형 및/또는 제한이 있는 현물 및/또는 향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년 1월 1일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세부 규정이 공포되기까지는 종전 방식을 준수할 것이 효율적으로 현재 법

적 공백은 있지만 새로운 세부 규칙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이전 조항을 준수하고 이후 공포된 세부 규칙으로 조정할 것을 권장된다.<끝>

## 월간 세무 뉴스

### 재무부장관령 제 196호 (PMK No.196/PMK.03/2021)

-조세조화법(HPP) 규정 중 자발적 재산 공개 프로그램(PPS)에 대한 시행령으로 2021년 12월 23일 공포하였고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

### 재무부장관령 제 3호 (PMK No.3 /PMK.03/2022)

-COVID-19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시행. 지난 1월 25일 공포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

-대통령령 24/2021호 규정에 대한 시행령 연장으로 Covid-19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세제 혜택 제공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제공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필요성 언급하였고,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수혜자 유형과 기준을 조정한 부분으로 인센티브 유형은 세가지로 축소되었고, 수혜자동 종전 업종(KLU)보다 대폭 줄었다. 이번에 발효된 세제 인센티브 유형 및 KLU

- 첫째, 수입 물품에 대한 소득세(PPh) 22조 면제 인센티브를 받는 업종(KLU) 도 종전 132개에서 72개 KLU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 둘째, 소득세 제 25조 분할 납부금의 50% 감면. 기존 216 KLU에서 156 KLU 만 적용된다.
- 셋째, 관개 용수 개선 사용 촉진 프로그램(P3-TGAI) 건설 서비스의 최종분리과세 PPh4 (2)는 정부(DTP)에서 부담 작년 12월까지 적용된 Covid-19 세제혜택인 재무부장관령 149호 (PMK No.149/PMK03/2021)에 상기 3가지 유형만 유지되고 연간 소득이 2억 루피아 이하 근로소득 PPh21에 대한 정부 부담, 부가세 조기환급 및 영세, 중소기업자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국세청 훈령 SE-05/PJ/2022

납세자 준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국세청 훈령으로 지난 2월 10일 공포하였다. 이번 훈령은 납세자 준수 감독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 훈령인 SE-03/PJ.33/2000, SE-26/PJ/2007, SE-27/PJ/2012, SE-37/PJ/2015, SE-39/PJ/2015, SE-62/PJ/2015, SE-49/PJ/2016 및 SE-07/PJ/2020.를 결합하고 개선한 규정으로서 세무당국에서 납세자의 납세 준수와 관련하여 감독 계획, 감독 이행, 감독 후속 조치, 감독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지침을 두고 있다. <끝>



The Year of Living Dangerously

지난호에 이어

1961년 보르네오섬은 5개 주로 이루어진 칼리만탄이 보르네오섬의 남쪽에 위치했고 북쪽에는 술탄국가인 영국령 브루나이와 영국 식민지인 북부 보르네오(나중에 사바-Sabah주로 명칭을 바꿈), 사라왁주가 칼리만탄과 1천마일의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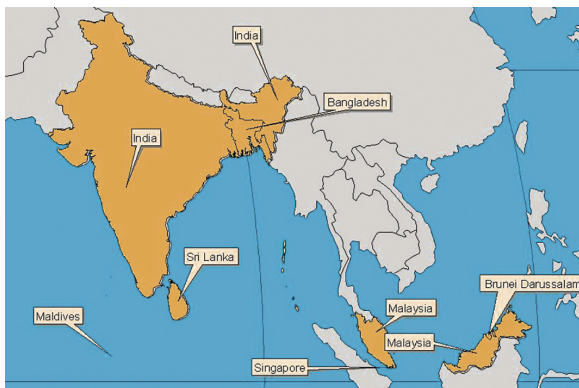
사라왁엔 90만 명, 사바에 60만 명, 브루나이에 8만 명 등 영국령 3개 주에 약 15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절반이 다약족이었다. 한편 사라왁에선 31%가 화교, 19%가 말레이인이었고 사바에서는 21%의 화교와 7%의 말레이인, 브루나이에 28%의 화교와 54%의 말레이인들이 살았다. 남부 사바의 따와우 지역엔 인도네시아인 인구가 밀집해 있었고 사라왁엔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화교들이 번성했다. 다약족은 그 압도적인 인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전반에 걸쳐 부족단위로 흩어져

살았고 정치적으로도 전혀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 사라왁은 5개 행정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사바는 북부해안의 제슬턴(지금의 꼬따끼나발루)에 수도를 두었지만 주민들은 지역 전역에 군락을 지어 산재해 있었다.

국경은 그 양끝은 제외하곤 대체로 해발 2,500미터를 넘나드는 능선을 따라 이어졌는데 쿠칭에서 브루나이나 사바 동쪽해안의 산다칸 등으로 이어지는 도로들이 나 있었지만 내륙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아예 나 있지 않았고 해안도로도 간헐적으로만 존재했다. 당시 측량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대충 만든 영국지도들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등고선을 표시하지 못했는데 인도네시아쪽 상황은 더 형편없어 1964년에 참전한 군인들은 교과서에서 뜯어온 흑백지도 한 페이지만 달랑 가지고 기동했다고 증언했다.

깔리만탄의 5개 주 중 북부, 동부, 서부 깔리만탄이 국경과 접해 있었다. 서부깔리만탄 주도인 서부해안의 뿌띠아낙은 국경으로부터는 약 160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동부깔리만탄 주도 사마린다는 남쪽 해안에 위치해 국경으로부터 350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국경지역 가까이엔 서쪽에만 일부 도로들이 있었고 서부와 동부 깔리만탄을 연결하는 도로는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국경의 양측 모두 차량기동이 가능한 도로가 없었고 온전한 지도도 없어 사람들이 걸어다닌 흔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었다. 그 대신 국경 양쪽엔 큰 강들이 흘러 유용한 이동경로가 되었고 영국군은 이 강을 호버크래프트로 오르내리곤 했다. 이 지역의 뻑뻑한 정글엔 경비행기가 뜨고 내릴 잔디활주로나 보급물자를 투하할 적당한 공터도 거의 없었으며 헬리콥터로 기동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뿌띠아낙을 가로지르는 적도는 쿠칭으로부터 100마일 정도 거리였으므로 언제나 폭폭 찌는 날씨였고 연간강우량이 3천 밀리미터 정도의 북부 보르네오는 항상 높은 습도를 유지했다. 보르네오는 기본적으로 열대우림이 뒤덮은 산악지대였고 강들이 경계를 이루는 곳엔 벼랑이나 가파른 경사면이 불과 몇 미터 폭의 능선과 이어져 있곤 했다. 높은 강우량과 깊고 넓은 강들은 군사적 기동을 크게 제한했고 뻑뻑한 맹그로브 숲이 해안지대를 뒤덮어 수많은 작은 만들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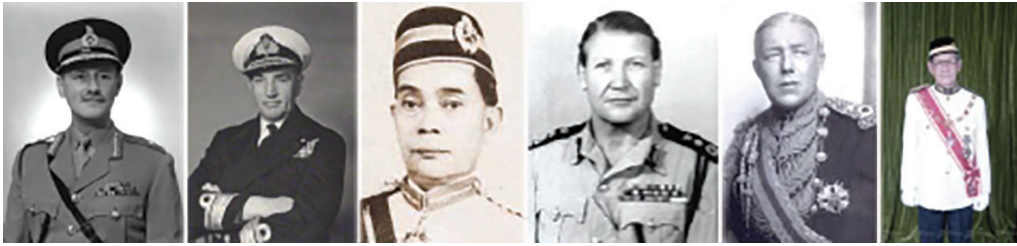
1962년 당시 아시아의 영연방국가들

국경의 양쪽 끝은 물론 브루나이 지역 역시 다를 바 없었다. 나중에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간의 교전이 시작된 후에도 이런 자연환경은 대대적인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전면전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말레이시아 대결정책,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분쟁 또는 보르네오 분쟁은 1963년부터 1966년 사이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연방의 확장을 반대하면서 벌어진 군사적 갈등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두 나라의 대결이 전쟁이라고 공표되지 않았던 것은 대부분 보르네오섬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국지적 충돌에 한정되었고 제한적 소규모 육상교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자연환경이 크게 한 몫 한 것이다. 교전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소대-중대 규모의 부대들간에 벌어졌다. 인도네시아는 보르네오 침투작전을 통해 사바와 사라왁 지역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본토와는 인종적, 종교적 차이가 있다는 부분부터 이간질하며 침식해 들어가 말레이시아연방 확대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국경의 길도 없는 험난한 보르네오 정글지대는 인도네시아군과 영연방군 모두에게 긴 행군을 강요했다. 그래서 양쪽 모두 경무장한 보병작전과 공중이동 중심이었는데 고성능 헬리콥터와 풍부한 물자를 가진 영연방군 측은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그랬던 것처럼 병력이동과 전방기지 운용을 그나마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반면 인도네시아군은 주로 강을 타고 이동했다. 간혹 항공지원이나 함포사격을 등에 업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미미했다. 대결양상이 장기화 되면서 말레이시아군은 꾸준히 그 역량을 높여 갔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군사지원을 확대했다. 영연방군은 서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극동연합전략본부를 구축했다.

1962년 12월 브루나이 반란진압을 위해 북부 보르네오에 도착한 병력들은 1963년 1월 보르네오 영국군사령부(COMBRITBOR) 휘하에 배치되었



왼쪽부터 워커 소장, 벡 제독, 툰쿠 오스만 장군, 페너 총경, 찰스 바이너 부록, 아드루찌

다. 월터 워커 소장은 라부안에 본부를 둔 보르네오 작전 지휘관(DOBOPS)이었고 극동 최고사령관 데이빗 루스 제독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1963년 초 극동 최고사령관은 베릴 벡 제독으로 정기 교체되고 1963년 중반엔 싱가포르 주재 참모장 팻 글레니 준장이 극동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부임해 왔다.

사라왁과 북부 보르네오에는 식민지 사령관인 주지사들을 포함하는 비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브루나이에서는 국가고문위원회가 술탄 직속으로 설치되었고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 국가방위위원회 휘하 국가집행위원회는 사바와 사라왁에 설치되었다. 군사명령은 말레이시아 국가작전위원회에서 나왔는데 말레이시아군 총참모총장 툰쿠 오스만 장군과 클로드 페너 총경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극동 영국군 총사령관도 이 위원회의 회원자격으로 회합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당시 사라왁의 브룩 왕조도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찰스 바이너 브룩은 사라왁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믿으며 왕좌를 영국왕실에 양위했다. 이로서 사라왁은 런던의 식민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왕실식민지가 되었고 런던에선 곧 신임총독을 선임해 현지로 보냈다. 그러나 절대적 인구점유율을 보이는 말레이인들의 양위반대운동이 1946년 벌어져 사라왁의 영국 고등집정관 던컨 스튜어트가 암살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아흐맛 자이디 아드루찌가 이끄는 사라왁의 반 말레이시아 운동이 뒤이어 전개되었다.

좌익과 공산당 세포조직들은 1930년대와 1940년대부터 사라왁의 도시 화교사회에 이미 자생하며 뿌리내리고 있었다. 사바의 초기 공산당조직들 중

엔 ‘반파시즘연맹’이 있었는데 이 조직은 나중에 민족해방군과 항일연맹으로 발전했고 다시 북부 보르네오 항일전선, 서부 보르네오 항일연합 등으로 세분화 되었다. 이중 서부 보르네오 항일연합은 우찬(Wu Chan)이라는 화교가 이끌었는데 그는 1952년 사라왁 식민정부에 의해 한 번 중국으로 추방되었던 사람이었다. 1946년 결성된 해외중국청년연합, 그 전위대인 해방연맹, 1950년대에 부각된 진보청년연합 등을 포함한 사라왁의 다른 공산당 조직들도 당시 사라왁에서 활동했다. 이들 조직들은 두 개의 공산계열라조직으로 발전했는데 반말레이시아 북부 깔리만탄 인민군(PARAKU)과 사라왁 인민계열라(PGRS)가 그들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공산당조직들은 영국이나 서구 매체에 의해 ‘비밀 공산당조직’ (CCO) 또는 사라왁 공산당조직(SCO)이라고 불렸다.

사라왁 공산당조직은 화교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상당수의 다약족 지지자들도 보유하고 있었다. 말레이 인종이나 사라왁 토착민들의 지지는 미미했지만 한창 전성기엔 SCO 회원 숫자가 24,000명에 이르기도 했다. 1940년대와 1950대를 거치면서 현지 화교학교들을 통해 모택동사상이 전파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은 노동집단과 1959년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족한 정치정당인 화교 주류의 사라왁 통합국민당에도 파급되었다. 사라왁 봉기는 1962년의 브루나이 반란 이후에 일어났다. SCO는 당시 PKI 공산당이 거대 정치세력으로 커진 인도네시아의 지원을 받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인연으로 그들은 1963년-1966년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대결 국면에서 브루나이 반군과 인도네시아군의 편에서 싸웠다.

브루나이 반란의 여파로 어수선한 와중에 북부 깔리만탄 정부군(TNKU) 잔당이 국경을 넘어 인도네시아로 건너갔고 영국군의 보복을 두려워한 화교 공산주의자들도 수천 명 단위로 사라왁을 빠져나갔다. 사라왁에 남은 그들의 동료들을 영국은 CCO라 부른 반면 인도네시아 측에선 사라왁 인민 게릴라군(PGRS)이라 불렀다. 수반드리오 외상은 보고르에서 TNKU 및 PGRS 지도자 그룹과 가진 회합에서 지원을 약속했고 나수티온 장군은 육군 특수전연대(RPKAD)에서 훈련교관 세 명을 사라왁 국경 인근의 낭아바단으로 보내 300여 명의 훈련병들을 교육시켰고 3개월 후 두 명의 위관급 장교들을 추가로 파견했다.

PGRS는 800명 규모의 병력을 이루었고 서부 깔리만탄 바뚜히땀이라는 곳에 근거지를 두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보국 소속 파견대 120명과 중국에서 훈련받은 일단의 간부들이 합류한 상태였다. 열성적인 PKI 인도네시아 공산당원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아랍혈통의 혁명가 소피안이 그들을 이끌었다. PGRS는 사라왁에서 일련의 습격작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사라왁 지역 지지자들을 포섭하는 데에 사용했다. 수카르노가 공공연히 공산당과 밀월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체로 반공주의 노선을 견지하던 인도네시아 군부



오마르 다니 공군사령관

는 PGRS의 좌익성향을 우려해 오히려 그 활동을 금지하려 했으나 공산당에 우호적이었던 인도네시아 공군 오마르 다니 장군이 드위꼬라 작전 사령관이었으므로 PGRS는 말레이시아 대결정책이 진행되던 동안 인도네시아군의 핵심전력 중 하나로 활동할 수 있었다.

1964년 인도네시아군은 말레이시아의 스펜안중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5월엔 말레이시아와의 전쟁행위를 조정하는 비상사령부를 구성했다. 지난 프리꼬라 작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작전은 당연히 드위꼬라 작전이라 불렀고 이 작전의 수뇌부인 비상 만달라사령부는 줄여서 꼴라가(Kolaga)사령부라 불렀다. 오마르 다니 공군장군을 사령관으로 하여 휘하에 3개 지휘소를 두고 있었는데 수마트라 소재의 제1대는 3개 공수 대대와 1개 해병 대대를 포함한 육군 12개 대대로 이루어졌고 께말이드리스 준장 지휘 하에 말레이시아의 스펜안중을 작전 목표로 했다. 제2대는 서부 깔리만탄의 병까양 소재로 해병대, 공군, 육군특수전연대에서 차출된 13개 대대로 구성되었고 제3대는 해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비상전단사령부로 여단병력의 상륙부대를 태우고 리아우와 동부 깔리만탄 경계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1964년 8월 말레이시아 반도의 조호(Johor)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무장공비 16명이 생포되었고 보르네오 접경지역에서도 인도네시아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므로 말레이시아군은 방어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방어작전에 투입된 말레이시아군은 숫자가 적어 국경초소를 중심으로 경계활동에 치중하며 인도네시아군의 침투를 경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군과 교전을 벌인 상대방은 영국군과 호주군의 SAS 특수부대였다. 2006년자 잡지 양까사는 당시 교전을 통해 인도네시아군 2천여 명과 영국/호주군 200여 명이 전사했다고 보도한 바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정치 사회 뉴스)

##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성소수자로 산다는 것”

인도네시아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대한 치안 당국의 탄압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공개적인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2018년 11월 국제앰네스티가 보고했다. 최근 자카르타포스트는 지난 1월 30일자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자 성소수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아래 글은 자카르타포스트를 기사문을 기초로 편집 및 재구성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LGBT에 대한 탄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LGBT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사례를 폭로하고 비판했다. 일부를 예로 든다면, 2018년에 람뽕주에서 자치경찰이 해변을 급습해 트랜스젠더로 의심되는 여성 3명을 체포했는데,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치안당국은 소방차를 동원해 ‘의무적으로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의 이슬람교 의식인 구슬(ghusl)을 진행해 공개된 장소에서 이들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다.

2018년 10월 19일, 서부자바주 경찰은 회원 4,093명이 가입되어 있는 GBI(Gay Bandung Indonesia 인도네시아 반동 게이) 페이스북 그룹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두 사람은 이후 전자정보거래(ITE)법에 따라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월 27일에는 아제 주 경찰이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근무하던 미용실 5곳을 폐쇄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강제로 남성의 옷을 입히기도 했다.

최근 자카르타포스트 특집기사에 따르면 성소수

자 활동가를 자처한 24살의 까이 마따. 레즈비언이라고 자신을 드러낸 까이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싱어송라이터로 발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까이 씨는 성소수자이면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산다는 것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까이는 자주 악플 세례를 받는데, 동성애 혐오와 인종차별이 섞여 있어 심리적 고통은 더욱 크다고 호소했다.

1997년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까이는 1998년 5월 사태 직후인 유아기에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성인이 된 후 인도네시아로 귀국해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탄압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운영하고 있다.

까이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자 성소수자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차별과 왕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한다”며 “정부와 사회가 나의 인간성과 정체성을 까발리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까이는 1998년 5월 사태 때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폭력과 2016년 정치, 종교, 언론 등이 떼거리로 나서서 성소수자를 무차별 공격하며 난리를 친 사건이 있었다. 이어 인도네시아 정신과의사협회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정신적 문제이며 성전환자는 정신질환이다”라고 공격한 일련의 사건 등은 폭력과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도 여전히 금기되고 있으나 자신의 가족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국계 성소수자인 헨드리 율리우스(33)는 작가이며 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의미하는 ‘젠더(gender)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이다. 율리우스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성소수자들은 다른 경험을 한다고 주장한다. 호주 시드니대학교에서 젠더 문

화를 연구해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사회적 계층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력이 소수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중으로 약점을 갖고 있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성소수자에게 장점과 단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헨드리는 경제적 능력이 성소수자이자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에게 어떤 점에서는 차별과 괴롭힘

으로부터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성소수자이며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투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공동체 의식의 자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의 전통문화 ‘계모임’과 거의 같은 인도네시아 ‘아리산’

우리나라에서 계모임의 목적은 친목과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산(Arisan)이라고 부르는 인도네시아에서 계모임도 목적과 운영방식이 한국과 대동소이하다. 어릴 적에 한 번쯤은 제주 또는 계원이 갯돈을 들고 잠적해 동네가 뒤집히기도 했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인도네시아도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진다고 한다.

우리말에 ‘상부상조’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말은 고통로용(Gotong Royong)이다. 두 나라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상을 당하거나 자녀 결혼 등 큰 일을 치를 때 목돈이 필요했고, 갯돈으로 십시일반 모은 돈을 몰아주었다. 산업화되면서 삶의 터전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계모임의 성격도 변화해, 상부상조라는 계모임의 목적이 재테크나 친목, 정보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 확장 등으로 바뀐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모임에 참여하기도 한다.

아리산과 관련한 2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아리산은 회원들이 돈을 모아 추첨이나 정해진 순서대로 목돈을 마련하는 상호부조뿐만 아니라 친목도모를 통해 재미를 찾고 인적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유익한 모임이라고 소개한다. 일부 사람들은 아리산이 중년 여성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험담이나 늘어놓는 건전하지 못한 모임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서부자바주 반둥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띠 씨는 1982년부터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들끼리 아리산 모임을 시작해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4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젠 아리산 모임에 손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등 회원들은 마치 가족과 같이 온정을 나눈다. 이들은 아리산을 통해 모은 돈으로 고가의 물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외국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통상 아리산은 추첨으로 목돈을 몰아주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회원이 있을 때 회원 간에 협의를 통해 순번을 바꾸는 융통성을 보이기도 한다. 띠 씨가 속한 모임을 하는 동안 회원 가운데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회원에게 우선 갯돈을 배정했다. 띠 씨의 딸이 자카르타의 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아리산 회원들이 자카르타까지 동행하는 따뜻한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민들이 중심인 아리산의 특성 상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식민지시대에는 독립운동 조직의 기초단위가 되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모임도 있고, 사상이나 의식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리산 모임도 약화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대면 모임이 줄고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아리산 모임은 붕괴 상황에 처했다. 아리산이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궁금하다.

## 인니 “노후연금 즉각 지급 요구 국민청원 40만명 서명”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보험(BPJS-Ke-tenagakerjaan) 가운데, 노후연금(JHT/Jaminan Hari Tua) 보험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서에 지난 16일 현재 40만4천명이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지난 2월 4일 노후연금 관련 장관령(Permenaker Nomor 2 Tahun 2022)을 공포하고 56세 이후에 노후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이전 규정은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해고된 날짜로부터 1개월 이전에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근로자보험을 관리하는 국영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이 2021년에 국영 보험회사 지와스라야(Jiwasraya)에 부실 투자 등 방만 경영으로 인해 20조 루피아에 이르는 손실

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소중한 재원인 연금보험을 종전과 같이 실직 후 1개월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엮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실직한 노동자가 크게 증가해 연금보험 지급을 요구하는 실직자가 쇄도해 수많은 실직 노동자들이 연금보험금을 받기 위해 대기 상태에 있어 관련 업무 처리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20년 11월에 해고된 디아나(가명, 42) 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10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 후 처음 6개월 동안은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근근히 생활을 해왔으나, 음식 장사도 수입이 줄고 가족을 부양하다보니 그동안 저축해놓은 여유통도 다 떨어졌다”며 “연금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회보장관리공단에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정부 “올해 노동집약적 사업 통해 일자리 35만개 만든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가 올해 수자원 부문 노동집약적 사업을 통해 35만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2월 16일 안파라통신에 따르면 공공사업·주택부 수자원국 자룻 위디오코 국장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2022년에 수자원 부문 노동집약적 사업에 4조3,500억 루피아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관개시설개선(P3-TIGA) 프로젝트에 2조2,500억 루피아, 빗물저수지용 인공 대수층(ABSAH) 프로젝트에 1,450억 루피아, 수자원 기반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에 24억 5천만 루피아를 배정했다.

공공사업·주택부는 P3-TIGA 프로젝트에 179,141명, ABSAH 프로젝트에 4,640명, 수

자원 기반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에 166,323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주택부는 2021년에 수자원 부문 노동집약적 사업을 통해 361,771명을 고용했다.

수자원 부문 외에도, 공공사업·주택부는 지난해 주택 부문 노동집약적 프로젝트에 417,381명, 도시계획과 개발 부문 프로젝트에 749,299명, 도로 건설 부문 프로젝트에 266,934명을 고용했다. 바수키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방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현금 노동집약적 프로그램(PKT)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제성장 촉진, 소비자 구매력 부양 및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동집약적 인프라 개발 사업을 펼친다고 덧붙였다.



## 핀테크의 저변이 넓어진다... 급여 선지급 서비스 Gajiku 150억루피아 유치

인도네시아에서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가운데, 급여 선지급 서비스 스타트업 ‘가지꾸(Gajiku)’가 초기 투자 유치 단계인 시드라운드(Seed Round)에서 150억루피아(11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가지꾸는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와 급여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집된 근무기록을 통해 각종 수당, 보험료, 원천세 등을 계산해 최종적으로 지급할 급여를 정산해 급여 한도 내에서 개인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들이 월급일 이전에도 고금리 피해 없이 언제든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가지꾸 서비스의 핵심이다.

2021년에 설립된 가지꾸의 고객사 타겟은 주요 인도네시아 소매사업자와 1,50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노동집약적 업체이다.

AC Ventures가 이끄는 가지꾸의 시드라운드는 Agung Ventures, Monk's Hill Ventures, Sampoerna 및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과 엔젤투자자들이 펀딩에 참여했다.

가지꾸 공동설립자인 세르만 따누위자야 대표는 “기업인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다”며 “기업에 향상된 근로자 관리체계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적자원 관리와 근로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이다. 가지꾸에 앞서 이 분야에 먼저 진출한 스타트업은 Gajiges, Gadjan, Rekruta 및 Mekari 등이 있다. Gajiges와 Mekari의 투자라운드 시드단계(Seed Money)는 각각 시리즈-A (660만달러)와 시리즈-D(1,800만달러)이다.

## 여성이 소유한 영세·중소기업의 절반이 빛에 시달려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이 소유한 중소·영세기업의 절반 가량이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월 16일 안따라뉴스가 보도했다.

여성권익·어린이보호부의 빈땅 뿌스빠요가 장관은 전날 열린 ‘W20 인도네시아 정책대화’에서 “(여성 소유의 중소·영세기업 중) 46%가 비용 지불과 부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인도네시아 중소·영세기업의 50% 이상을 여성이 소유하고 운영한다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과 발전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빈땅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들 중소·영세기업의 3분의 2가 수입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지역사회의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빈땅 장관은 “세계적으로 여성 3명 중 1명은 폭력의 피해자”라며, G20 회의에서 여성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1월호부터 {-kan} 접미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월호와 2월호를 통해서 7가지 기본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많은 예문을 활용해 학습을 확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nas (뜨거운) → memanaskan (~를 뜨겁게 하다 ⇨ ~를 데우다) ‘어떠한 상태가 되게 만들다’**

Dodi memanaskan sup itu.

**또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만들다’ tidur 자다 → menidurkan (자게 만들다 ⇨ 재우다)**

Ibu saya menidurkan adik saya.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을 재운다(재웠다)

보통 이런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학습과정에서 {-kan}이 들어가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걸 어느 뜻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보다 더 중요한 건 {meN-kan} 단어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membandingkan**(~를 ~와 비교하다), **membayangkan**(~를 떠올리다 to imagine), **memikirkan**(~를 생각하다), **menerangkan**(~를 설명하다), **mengadakan**(~를 개최하다), **menerjemahkan**(~를 번역하다, 해석하다), **menjelekkan**(~를 욕하다), **menyalahkan**(~를 탓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다면, 이 다음에는 목적어나 목적절이 나온다는 걸 이해하면 충분해요. 이런 류의 단어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접할 때마다 의미와 예문을 공부하면 돼요.

이런 류를 제외하고 <기본 개념> [1]번에 예시를 들어둔 ‘~한 상태로 만들다, ~하게 만들다’에 해당하는 단어 예시를 좀 더 들어볼게요.

	어근	뜻	{-kan} 동사		어근	뜻	{-kan} 동사
형용사	besar*	크다	→ membesarkan	동사	keluar	나가다	→ mengeluarkan
	kecil	작다	→ mengecilkan		mati	**v.(전기가) 꺼져있다	→ mematikan
	dingin	차갑다	→ mendinginkan		jatuh	떨어지다	→ menjatuhkan
	rapi	정돈되어 있다, 깔끔하다	→ merapikan		masuk	들어가다(오다)	→ memasukkan
	sederhana	간단하다	→ menyederhanakan		kembali	원상태로 되돌아가다	→ mengembalikan
	mudah	쉽다	→ memudahkan		duduk	앉다	→ mendudukkan
명사	hijau	녹색	→ menghijaukan	berhenti	멈추다	→ memberhentikan	
	nyala	(램프에서 나오는)빛	→ menyalakan				

\*\*전기가 꺼져있다(padam)는 뜻으로 쓰일 때 ‘mati’ 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형용사인 듯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동사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어요(KBBI)

#### <단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어를 한국어 사전에서만 찾아서, 사전적인 뜻으로만 외우지 마세요.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항상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문하세요!** Contoh kalimatnya bagaimana? Contoh penggunaannya seperti apa? (\*penggunaan = usage 쓰임, 용례)  
 <표> 첫 줄에 있는 besar\*라는 단어 개념이 참 재밌어요. ‘크다 (big, large)’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서 ‘많다’ 라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besar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Gajinya besar. 그 사람의 월급은 ‘크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 사람의 월급은 ‘많다’ 라고 해석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Gajinya tinggi라고요. Gajinya banyak이라고 하기 보다는 besar나 tinggi를 더 많이 써요. besar보다 좀 더 캐주얼한 단어인 ‘gede[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억수같이 많이 오면 Hujannya gede banget.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크다’ 라고만 공부했다가 차차,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를 직접 들으면서 단어용례를 확장할 수 있게 돼요.

**[예문과 해석]** 아래 왼쪽 칼럼의 키워드를 구글에 쳐서, 뉴스 검색을 하면 생생한 예문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membesarkan** Dewi sedang fokus membesarkan anaknya yang masih kecil.  
데위는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Indra dibesarkan di Nigeria hingga berumur 6 tahun.  
인드라는 6살때까지 나이지리아에서 컸다.

---

**mengecilkan** Cara mengecilkan perut buncit tanpa diet dan olahraga ketat :

1. Tidak melewatkan waktu sarapan.

2. Minum air mineral yang cukup.

철저한 다이어트와 운동 없이 볼록한 배를 작게 하는 방법 :

1. 아침을 거르지 않는다.

2. 물을 충분히 마신다.

“Saya tidak berani menaikkan harga dagangan, solusinya ukuran agak dikecilkan saja.” 판매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 크기를 좀 작게 만드는 수 밖에요. (요즘 tempe, tahu 원가가 오르고 있는데 가격을 인상할 수는 없고, 좀 작게 만드는 게 그나마 해법이라고 말하는 장사꾼의 인터뷰를 인용)

---

**mendinginkan** mendinginkan다음에 어떤 단어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

면요, mendinginkan ruangan yang panas 더운 공간을 차게 하다(온도를 내리다), mendinginkan tubuh 몸에 열을 식히다, mendinginkan suasana 분위기를 식히다?(긴장된 분위기를 해소하다), mendinginkan situasi konflik 대립상황을 완화하다(meredam situasi konflik도 가능).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물리적으로 어떤물체, 신체, 공간의 온도를 낮추거나, 긴장된 분위기를 해소하는 거죠.

Masker teh hijau dingin membantu mendinginkan kulit dan mengurangi bengkak. 올바른 해석/번역 : 차가운 녹차 마스크를 하면 피부의 열이 식고 부은 것도 줄일 수가 있다. (직역하면, 차가운 녹차 마스크는 피부를 식히고 부은 것을 줄인다)

Korsel dan Korut sepakat untuk berusaha mendinginkan tensi militer.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merapikan** Dengan merapikan tempat tidur, kamar langsung terlihat rapi.

침대를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방 전체가 잘 정돈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일 수가 있다.

\*merapikan다음에 어떤 단어들을 쓸 수 있는지 구글 검색을 해 봤어요 : merapikan tempat tidur, merapikan tulisan, merapikan isi laci, merapikan rumah, memakai behel untuk merapikan gigi, merapikan mainan, merapikan tas berisi buku-buku, merapikan dagangan, merapikan permukaan jalan sesuai disiram cairan semen, merapikan hijab, merapikan isi kulkas..... 뭔가 정돈되지 않은 것을 정리정돈하다, 옷 일 경우에는 매무새를 갖추다가 되겠고요, 시멘트를 뿌리고 난 다음에 길이 울퉁불퉁하니 까 길을 매끄럽게 잘(평평하게) 만드는 것도 merapikan을 쓰네요. 이가 고르게 나지 않아서 교정기를 끼는 것도요.

\*dirapikan : Tes Covid sedang ‘dirapikan’ Menkes (Menteri Kesehatan) , ka-bel-kabel itu telah dirapikan, Regulasi dan perizinan perlu dirapikan.... 어떤 시스템이나 규정 같은 것을 개선하거나, 얽혀있는 전기선을 정리할 때도 merapikan, dirapikan을 쓰네요.

**menyederhanakan** Kementerian Kesehatan menyederhanakan exit text bagi pasien Covid-19. 보건부는 코로나 환자의 자가격리해제 (exit test) 요건을 간소화하였다.

**memudahkan** Digitalisasi memudahkan pelayanan di Puskesmas. 디지털화 덕분에 보건소의 서비스가 간소화되었다.

**menghijaukan** Pemerintah sedang berupaya untuk menghijaukan tempat wisata. 정부는 녹색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enyalakan** menyalakan lampu, menyalakan motor, menyalakan kipas angin  
불을 켜다, 모터를 켜다(오토바이), 선풍기를 켜다  
이런 것 말고도 비유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menyalakan mesin partai)

**mengeluarkan**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게 하다 (꺼내다, ~를 발표하다 등)  
한국어를 따로따로 외울 필요 없이, 연어하고 잘 연결해서 적절한 한국어를 꺼내어 쓰면 돼요.  
mengeluarkan izin /pedoman/kebijakan 허가/지침(가이드라인)/정책을 발표하다  
mengeluarkan album solo 솔로앨범을 내다(발매하다), mengeluarkan film baru 신작 영화를 출시하다, mengeluarkan dahak (목에서 가래가 나오다), mengeluarkan suara (소리를 내다)

**mematikan** mematikan laptop ‘노트북을 끄다’, mematikan lampu ‘불을 끄다’ 와 같은 동사로도 쓰이지만, ‘치명적인’ 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때는 우리에게 형용사처럼 느껴지지만 문법 범주는 동사예요. Ilmuwan mengatakan, pandemi setelah virus Corona-19 bisa lebih mematikan. 코로나19 다음에 오는 또 다른 팬데믹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학자가 말했다.

**menjatuhkan** menjatuhkan 뭔가를 떨어뜨리다, 넘어뜨리다(~에)  
menjatuhkan sanksi 제재를 가하다, menjatuhkan nama baik (명예를 실추시키다), menjatuhkan pesawat 항공기를 격추시키다(떨어뜨리다)  
목적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 Teman yang seperti ini biasanya memakai to-peng. Dia kelihatan sok baik di depanmu, tapi diam-diam berniat menjatuhkan.  
‘너’ 를 생략했다는 걸 맥락에서 알 수 있어요. [해석] 이런 친구는 보통 가면을 쓴다. 당신 앞에서는 착하다 착한 척을 하다가 몰래 당신을 ‘넘어뜨릴’ (욕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의미함, 물리적으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수도 있다.

**memasukkan** memasukkan tangannya ke saku (주머니에 손을 넣다), memasukkan alamat (~에다 주소를 넣다, 즉 기입하다), memasukkan data (데이터를 입력하다), memasukkan anaknya ke pesantren (아이를 뺏산뜨렌에 입학시키다), memasukkan orang-orang tertentu ke daftar hitam (특정 인물들을 블랙리스트에 넣다, 등재하다), memasukkan Asnawi (축구선수, 넣다, 즉 투입하다), memasukkan mobil ke garasi 차를 차고에 넣다, belum memasukkan bisnis kendaraan listrik... 전기차사업은 아직...에 포함을 안시켰다.

다음호에 계속

나를 쑥쑥키우는 인니어 질문은 여기로 ✉ nusantara817@ddum.net



## Sir Loin (Kebayoran Baru)



글: 주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작년 7~8월 델타 변이 급속 확산에 이어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주변에 많은 확진자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빕니다! 이번 호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고기, 스테이크 맛집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스테이크하면 고급 식당의 비싼 스테이크를 떠올리실텐데요. 간혹 현지에서 중저가 스테이크 식당도 있습니다만, 고기질이나 식당 분위기가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퐁퐁 숨겨왔던 저만 알고 싶은 스테이크 맛집 <Sir Loin> 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거주하시는 빠꾸보노 및 보타니카 아파트 근처에 있는 데요. 스테이크 식당치고 외관이 그리 화려한 편은 아니라 무심코 쓱 지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화려하지 않은 외관 대비 내부 인테리어는 모던하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식당의 가장 큰 매력이지요.

우선 추천드릴 메뉴는 Pumpkin Soup(48,000루피아++)입니다. 한국식 호박죽과 달리 생크림이 들어가 있어 매우 부드럽고 풍미가 있습니다. 특히, 스프에 후추를 살짝 가미하면 환상적인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맛있는 고기를 맞이하기 전, 속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에피타이저로 강추입니다! 몸이 안 좋거나 체했을 때 생각날 그런 마법의 스프입니다~

다음은 Truffle Mushroom Angel Hair(135,000루피아++)입니다. 한 때 엔젤헤어 파스타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엔젤헤어는 천사의 머리카락처럼 곱고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카펠리니(Capellini) 파스타 면을 말해요. 카펠리니는 지름이 0.85mm~0.92mm 정도인 매우 가는 형태로, 한국의 소면과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엔젤헤어 파스타는 일반 파스타보다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인데요. 이 식당의 엔젤헤어 파스타 가격은 꽤 합리적인 편입니다. 양도 많고 무엇보다 정말 맛있습니니다! 파스타이지만 그리 느끼하지도 않고요. 트러플 슬라이스가 큼지막하게 올라가 있어요~ 트러플향을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드려요!

대망의 메인코스 메뉴인 스테이크입니다. 이 식당에는 개인별 200g기준의 Prime Steak 또는 다른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Share Steak, 이렇게 두 종류의 스테이크가 있는데요. Share Steak 메뉴를 고르시면, 사이드 메뉴 1개 및 소스 1개를 무료로 선택할 수 있어요.

Prime Steak 메뉴를 고르시면, 사이드 메뉴 및 소스를 별도로 주문하셔야 해요. 그런면에선 Share Steak 메뉴가 좀 더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 주문량이 500g인 점 참고하세요~ Share Steak 메뉴로는 Chateaubriand(100g당 190,000루피아++), Wagyu Beef Ribs(100g당 85,000루피아++), Truffle Butter Aged Tomahawk(100g당 210,000루피아++), Bistecca Fiorentina(100g당 145,000루피아), Bone in Rib Eye(100g당 125,000루피아++)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스테이크에는 버터 기름을 듬뿍 뿌려줍니다. 하지만 그리 느끼하지 않아요. 다양한 메뉴 중에서 각각 선호하시는 부위로 주문하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고기가 정말 신선하고 부드럽거든요.

이 외에도 이 식당은 기본 에피타이저로 팝콘을, 디저트로는 카라멜 솔트맛 아이스크림도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스테이크용 나이프가 정말 큼니다. 궁금하면 꼭 한 번 가보세요~

여러분~고기드시고 힘내세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 <식당 정보 : Sir Loin>

음식 종류 : 스테이크

가격대 : Rp 600,000 / 2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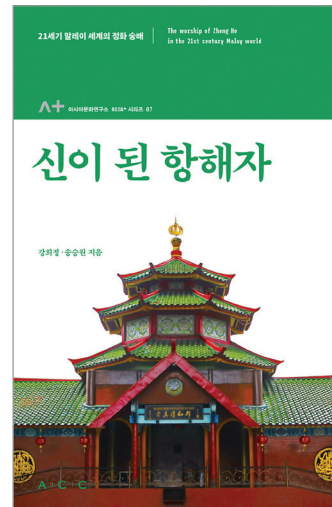
영업시간 : 월~목(11:30~21:00),  
금~일(11:30~22:00)

주소 : Jalan Bumi No.20,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 Zomato 참고

# “정화, 인도네시아 화인의 수호신에서 자바의 이슬람 전파자로”

제목 : 신이 된 항해자  
저자 : 강희정, 송승원  
출판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출판일 : 2021년 11월 30일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책이 답하다’ 는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에 대해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세계 바다를 호령했던 명나라 해군 제독 정화가 무슬림이었다는 이야기를 인도네시아에 와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03년에 수라바야에 정화모스크가 공식 개관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후 무슬림 정화와 관련된 모스크가 더 세워졌고 정화가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후 13세기 말부터 자바의 이슬람화에 기여했던 9명의 성인인 왈리송오(Wali songo)에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글을 읽었고, 일부에서는 9명이 모두 중국인이라는 설까지 나왔다. 그동안 왈리송오는 이집트와 터키에서 온 무슬림들, 수마트라 북부의 아체인과 자바인 등 현지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한국에서는 중국 환관 출신으로 콜럼버스보다 약 100년이나 앞서 동서해양무역로를 개척한 인물로 알려진, 정화를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역의 신’ 으로 숭배해서 중부자바 주도 스마랑에 ‘삼푸콩’ 이라는 사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중국풍 건물에 정화의 동상뿐만 아니라 정화가 쓰던 돛과 ‘땅의 신’ 까지 여러 신을 함께 모시는 사원이라는 것도 한국과 달랐다.

2000년대 이후 정화의 소환은 인도네시아에서 화인의 지위 향상과 중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 등과 연관이 있다. 중국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역사적 정당성과 근거를 위해 정화의 대원정을 다시 소환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화와 그 일행은 근현대 동남아 화인의 시작으로 여겨져 숭배됐는데, 2000년대부터는 인도네시아 이슬람화에 기여한 인물들로 재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정화가 인도네시아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화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한다.



## 〈묻고 답하기〉

### 묻다) 정화(鄭和)는 누구인가?

**답하다)** 명나라 영락제의 명을 받아 남해 원정을 떠난 역사상의 인물입니다. 1405~1433년 기간에 일곱 차례에 걸쳐 대함대를 이끌고 인도양을 건넜습니다. 콜럼버스보다 약 한 세기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정화는 윈난성의 무슬림 출신으로, 유년시절에 윈난성이 명에 복속된 뒤 포로가 돼 거세를 당해 환관이 되었지만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대제독까지 올랐습니다.

### 묻다) 인도네시아에서 정화의 이미지는?

**답하다)** 부유한 선장이며 사람을 잘 도와주는 착한 상인 그리고 ‘무역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 묻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화를 어떻게 부르나?

**답하다)** 정화는 중국어·만다린어 발음으로는 정휘(Zheng huo) 또는 정허(Zheng he)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푸첸식인 첩호(Cheng Ho) 또는 청후(Cheng Hoo)로 발음합니다. 자바에 푸첸성 출신 화인들이 많아서인 듯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인들은 정화를 삼보태감 또는 삼보대인이라 불렀고, 자바에서는 담포 아왕(Dampo Awang)이라 불렀습니다. 삼보는 정화의 본명인 마삼보에서 왔다는 설과 삼보(삼푸)라는 물고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화의 배가 폭풍으로 난파 위기에 처했을 때 삼보라는 이름의 물고기가 선체의 부서진 부분을 몸으로 막아주어서 배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전설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전해집니다.

### 묻다) 정화는 어디까지 갔다왔나?

**답하다)** 마환의 『영애승람』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항해를 재구성하면, 정화는 참파(현재베트남 남부)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서아시아까지 갔으며 그의 함대 중 일부는 아프리카 동해안 모가디슈까지 갔습니다. 정화의 함대 중 일부는 중국인 최초로 메카까지 다녀왔습니다. 정화가 방문한 인도네시아 지역들은 자바 동부의 수라바야, 자바 중부의 스마랑, 뚜반, 수마트라의 팔렘방과 반다아체 등이고, 현재는 말레이시아 영토가 된 므라카는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들 지역에는 정화를 기리는 사원들이 존재합니다.

### 묻다) 정화는 원정지에서 무엇을 했나?

**답하다)** 정화는 들르는 항구마다 현지 왕국의 조공 약속을 받고 영락제가 원하는 물품을 받았고, 때로는 왕과 왕실 가족, 혹은 사신을 데리고 명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 묻다) 정화의 원정이 중단된 이유는?

**답하다)** 영락제는 정화와 그의 함대의 활동에 흡족해 했지만, 영락제 사후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실속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명은 함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금령을 내려 바다로의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더욱이 명나라의 관료들은 해외 원정이 지속될까 두려워 정화가 남긴 원정 기록을 모두 소각했습니다.

### 문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정화의 의미는?

문다) 정화는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신격화된 중국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정화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유·불·도 삼교가 융합된 사원에서 화인들의 신으로 추앙받았고 종교적 구심적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는 무슬림 화인들의 종교적 구심점으로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 문다) 인도네시아 곳곳에 남아 있는 정화 관련 이야기는?

답하다) 동부자바 끄디리 지역에는 정화가 소지 공주와 사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쨌레본의 한 사원은 정화가 하룻밤 만에 똑딱 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발리 린자니 사원에는 정화의 요리사가 사용했다는 식칼과 슬리퍼, 담뱃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반다 아체의 한 박물관에는 정화가 원정 당시 현지 왕에게 기증한 짜끄라 도냐(Cakra Donya)라는 종(bell)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리안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이주한 화인들은 동남아의 과일 두리안을 먹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정화가 약으로 두리안을 먹으라고 권해 먹었더니 전염병이 나았고, 그때부터 이주 중국인들이 두리안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 문다) 끌렌땡은 무엇인가?

답하다) 끌렌땡(klenteng)은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식 사원을 부르는 이름이고, 수라바야, 스마랑, 쨌레본, 자카르타 등 화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정화를 포함해 유교, 불교, 도교의 성인과 신들을 함께 모십니다. 끌렌땡에서 정화는 고향인 중국을 떠나 떠나면 이국에서 살아가는 화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종의 수호신 역할을 했습니다.

### 문다)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스마랑의 삼푸공 사원에 대해

답하다) 중부자바 스마랑에 있는 삼푸공 사원은 정화 사원 중 가장 유명한 곳이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끌렌땡입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삼푸공 또는 거둥 바투Gedung batu라 부르고, 중국식 이름은 삼보묘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의 요소가 가미된 복합적 사원으로 중국인과 자바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고, 한쪽에 정화 신상을 만들어 예배를 드립니다. 삼푸공 사원을 떠받치고 있는 서사는 ‘정화의 항해’로, 정화와 그의 선원들, 정화가 쓰던 물건이나 정화 선박의 닻 등을 모시는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은 삼푸공 사원을 방문해 정화 동상에 기도를 올리고 사원 내 정화 일행의 이슬람식 무덤을 순례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화인 상인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무역활동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 문다) 화인은 언제부터 인도네시아에 왔나?

답하다) 화인의 동남아시아 이주는 한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상인과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5세기에는 정화의 대원정이 중국인의 이주를 이끌었습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 무역상들이 자바를 방문했을 때, 이미 중국인 무역상들이 거주지를 만들고, 쌀과 후추 등의 향료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바타비아 건설 노동자로, 방카와 블리둥의 주석 광산 노동자 또 여러 지역의 플랜테이션 노동자로 중국인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문다)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현지인과 화인을 어떻게 갈랐나?**

**답하다)**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유럽인을 제1시민, 중국인 등 외국인을 제2시민, 현지인을 제3시민으로 분류하고, 현지인보다 중국인을 우대했습니다. 또한 현지인은 게으르고 열등하다는 식민담론을 유포하고, 중국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식민시기에 인도네시아인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을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 여겨서 노동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라고 합니다.



**문다) 화인들이 이슬람교가 주류인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이슬람교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답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네덜란드 식민정부가 분할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을 막고, 개종한 중국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을 3등 시민인 현지인이 믿는 종교로 간주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을 계급이 강등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화인들은 이슬람이 자신들을 탄압하는 세력으로 여기고 이슬람으로 동화를 꺼렸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이슬람단체인 샤리캇이슬람은 20세기 초에 중국인들이 바틱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네 번째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등의 이슬람 계율이 중국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슬람을 선택할 경우 비무슬림이 주류인 화인커뮤니티에서 배척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다) 15세기 인물 정화를 21세기에 소환한 이유는?**

**답하다)** 인도네시아 화인들이 과거 탄압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지 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1965년 공산당이 주도한 930정변과 소요사태, 그리고 1998년 수하르토 실각 과정에서 발생한 '5월 민주화시위와 소요사태' 로 많은 화인이 국가·사회적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화인들은 동화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중국의 부상에 대한 화인들의 호응과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역사적 정당성과 근거를 위해 정화의 대원정을 다시 소환한 이유도 있습니다.

**문다) 2003년에 수라바야에 정화모스크를 짓고 대머적으로 홍보했다. 정화모스크는 화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답하다)** 정화모스크는 화인들이 현지 사회에 동화하고 토착화 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매개입니다. 정화모스크는 관용적이고 다문화적인 이슬람을 상징하며, 인종을 넘어서 무슬림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중국 내 무슬림과의 연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내 화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욕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끝)

## 마음 돌보기

헬렌(Heylen) / HOTEL GRAN MELIA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뉴스가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많은 분들이 피곤함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지인들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왓츠앱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친구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하늘나라로 간 일이 있어요.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 가까운 친척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면 남은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지요.

저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밖에 없는데, 자리에 앉기 전에 의자를 여러 번 소독제를 뿌려 소독하는 분들도 있고, 면담하는 사무실 허공에 소독제를 뿌리는 분들도 계세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상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코시국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지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지만, 과도한 걱정이나 두려움 또한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걱정을 과도하게 하면 우리 뇌의 편도체가 활동과다를 일으키게 돼요.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이 편도체는 감정, 행동, 기억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데, 편도체의 주된 역할은 위협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을 통제하는 거예요. 위협적인 상황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압박을 느낄 때 신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스트레스 요인에 도전적으로 대항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편도체는 시상하부에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내보내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런 호르몬은 호흡, 혈압, 심박수와 같은 자율신경계와 연관이 있는 생리적 반응을 유발해요. 두려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혈압이 오르고 심박수가 빨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편도체가 감정 처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편도체에 이상이 생기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돼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과도하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편도체가 손상되면, 기억력도 감퇴하는데 특히 정서적 기억이 감퇴되고, 편도체가 활동과다가 될 경우 쉽게 기분이 언짢아진다는 등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스트레스는 살아 있는 한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건데, 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되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은 이것을 공격이나 위협으로 인식해요. 예를 들어 다음주에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또 인지작용과 관련이 있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을 내보내요. 이 호르몬들로 인해서 집중력을 더욱 발휘해 프로젝트 준비에 임하게 되지요.



(번역: 민선희)

그런데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이런 호르몬들이 과다 분비돼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냉철한 사고를 한다는 게 더 어려워지고요. 수면장애가 오고,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집중력도 흐려지죠. 식습관 패턴에도 변화가 올 수 있고, 정서적으로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화도 더 잘 내게 되고요. 맡은 일을 잘 해내지 못할까 걱정도 커지죠.

그런데 우울증은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정신질환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인 정서 상태, 식욕, 수면 패턴, 집중력 등에 영향을 끼쳐요. 우울증을 불행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의욕이 없거나 동기부여가 어렵고 슬픈 정서상태를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죠.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쉽게 지치고요.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다행인건, 우울증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이에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무기력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심리 테라피를 받는다면 한결 편안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기업들도 얼마든지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할 수 있으니, 직원들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나와의 약속 2

지난호에 이어

###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 아내는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다. 처음 만난 것은 2002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소개팅 상대를 기다리는 중 갑자기 긴 생머리에 치마를 입은 예쁜 아가씨가 내 앞에 와서 김성학씨 맞으시냐고 물어보는데, 처음 볼 때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시골이 고향이다 보니 평범하거나 조금은 촌스러울 줄 알았던 여자가 이렇게 세련되고 예쁘고 화사한 사람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데이트 후 헤어질 때 또 만나자고 얘기했다가 돌아온 대꾸는 ‘별로다’, ‘마음이 없다’였다. 거절당했을 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르겠다.

원작: 김성학, 작가: 김태훈(JIKS 10)

하지만 실망도 잠시, 그래도 오늘 첫 만남인데 한 번으로는 알 수 없으니 다시 만나보자 매달리며 약속을 잡았다. 두 번, 세 번, 그리고 다시 헤어질 때 “지금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니 조금 관심이 생긴다고 하여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사나이는 무조건 삼세번이다. 한번하고 난 안돼, 나약하게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결혼식은 내 고향 고창에서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아버지의 의견이었다. 사실 결혼식은 딱히 기억에 남는 해프닝이 없던 것 같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기엔 부산하고 복잡한 결혼식이었다. 굳이 그때를 말하자면 정신 없는 결혼식 정도지만, 딱 하나, 기억에 남는 주례사의 말이 있었다.

**콩팥은 한 개여도 살아 갈수는 있지만 무언가 부족하여 완벽하지 못하고, 두 개가 한 쌍이 될 때 몸에 딱 맞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2명의 남녀가 만나 서로 의지하고, 보안을 하여 완벽한 공동체가 됩니다.**

주례사의 말과 함께 어수선했던 결혼식을 마치고 친구가 준비해준 웨딩 카를 타고 광주 공항에 도착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제주도에 진눈깨비 눈이 내려 줌처럼 보기 어려운 눈꽃이 한라산에 피었다고 해서 가보았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제주도 신혼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눈꽃이었다. 태어나 처음 보는 눈꽃, 세상을 온통 하얗게 물들여 모든 것을 순수하게 해버린 눈꽃, 정말 기억에 남았다.

대한민국 1등 가장의 50년사

# 나와의 그 약속

가장 큰 신뢰는 자신과의 약속이다



원작\_김성학  
작가\_김태훈(JIKS. 10학년)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다 보니 아이가 생겼다.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나 설레던지, 두근거리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출산할 시간이 다가오자,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보다 더 긴장이 되었다. 12시간을 진통하던 아내는 결국 수술을 해서 태훈이를 낳았다. 구슬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해 있는 아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무척 미안했다. 자연분만이 아니면 어떠랴!

아내와 나는 손을 마주잡고 맹세했다. “우리 둘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니, 정말 건강하고 멋진 녀석으로 키웁시다!” 아이를 보며 우리 부부는 마음을 다잡았다. 부모가 되려면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초음파로 보던 태아의 모습은 예뻐는데, 실제로 나온 아들은 별로 안 예뻐다. 내 아이가 맞는 건가, 혹시 바뀐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웃음) 다행히 며칠이 지나니 초음파 사진으로 보던 예쁜 아기의 모습이 서서히 나왔다. 여담을 말하자면, 큰아들이 나오길 기다리던 나는 같이 기다리던 조카가 주던 오징어 다리를 계속 받아먹었다. 진통하는 아내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조카가 주는 거라 거절할 수도 없었다. 질경질경 오징어다리를 씹으며 “괜찮아?” 묻는 내가 알미웠던지 나중에 아내가 눈을 흘기며 물었다. “오징어가 그렇게 맛있더냐? 난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아직도 가끔 이 이야기는 술안주로 나온다.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 때마다 늘 힘이 되어준다.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가끔 드는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내이다.

“언제든지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둬. 내가 당신 책임 질게.”

이런 위로를 해주는 아내 덕에 나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다.

두 아들 태훈, 태우는 내가 힘들 때마다 마음을 바로잡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존재들이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며 거짓 없이 털어놓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모 집단이다. 그래서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들’ 이기에.

큰아들 태훈이가 졸업하던 날 굉장히 기뻐다. 별다른 지원 없이 딱 하니 최우수상을 타고 1위로 졸업을 하는 게 아닌가! 졸업생 학부모 대표로 축사를 낭독하는 내내 울음을 삼켜야 했다. 기억에 남는 축사의 한 구절을 적어보려다. “*Youth. Pull up the anchor! Hoist the sail! You are the protagonist in the story of your life!*”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들에게 전했던 그때의 메시지처럼 우리 아들이 ‘인생의 주인공’ 이 되어 삶을 개척하길 바란다.

그렇지만 두 아이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횡단 보도에서 출장 갔다 오는 아빠를 기다리던 어린 아들들을 보았을 때이다. 아빠를 발견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갑자기 빨간 불로 바뀌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새도 없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웬걸! 큰아들 태훈이가 넘어진 동생 태우를 끌어당겨 등에 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아닌가!



겨우 두 살 많은 형이 책임감 있게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횡단 보도를 건넌 아이들이 내 품에 안겨오던 그 순간의 감동을 영원히 잊을 수 없으리라.

내 아내 박민수는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인애의 어머니’이다. 잔소리로 들릴 때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향한 아내의 ‘사랑의 조언’은 화수분처럼 솟아난다. 손에 쥘 열 개를 다 주어도 아내는 부족한가 보다. 자식들에게 더 해주지 못해 항상 아파한다. 이런 헌신적인 아내와 바르게 성장하는 아들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시간이 내게는 무척 소중하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늙어가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건배를 나누는 게 인생 아니겠는가! 요즘 아내와 취미생활을 함께 하며 생활의 활력을 느낀다. 한 달에 한 번, 같이 골프 치며 손 잡고 걷는 시간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 근면, 성실, 정직, 목표를 위한 도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목표가 없으면, 인생이 단조로워지고 느슨해지며 재미도 없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생기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며 정진하다 보면 언젠간 그 결과를 이룰 것이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드류 매튜스는 말했다.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라. 목표가 있거든 그것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무의식에 새겨 넣어라.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사이 내면의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마지막 결과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버지로서의 확고한 목표가 있다. 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처럼, 내 아이들에게도 ‘다정하고 친구 같은 아빠, 미래를 위해 이정표를 세워주는 아빠’가 되기를, 아이들이 훗날 나를 떠올릴 때, 그런 아빠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믿음직한 가장으로, 아빠가 되기 위해 나와서 약속들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켜내고 있는 나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 주고 싶다.

사랑하는 두아들 태훈, 태우에게

자	신	과	의	약	속	도
중요하다						

Date 2021. 12.

항상 진실된 마음가짐을 가져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멋진 남자로 성장하거라.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라. 진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꼭 해주고 싶었다. 난 안될 거야, 난 할 수 없어와 같은 마음가짐은 너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단다.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거듭 노력하고 부딪혔듯이 ‘해 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 도전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 성공이나, 실패냐는 그 다음에 결정된다. 근면, 성실, 정직,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성공은 너희들의 것이란다.



### E2MOM 5 Rounds

- 10 Push Up
- 10 Air Squat
- 12 Front Lunge (6-R, 6-L)
- 1 Sit Up

이번달에는 E2MOM이라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2MOM이란 Every 2 Minutes On The Minutes의 줄임 말인데 2분동안 아래의 4가지 운동을 수행한 후 2분 전에 본 운동이 마무리되면 2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을 쉬고, 2분이 끝나고 다시 2분이 시작되면 본 운동을 다시 수행합니다. 이렇게 2분씩 5번을 수행하는 운동입니다. 짧지만 효과만큼은 큰 운동 방법이므로 여러분들 모두 함께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Push Up



어깨, 엉덩이 그리고 발 뒤꿈치가 거의 일직선이 되게 준비 자세를 하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가슴이 바닥에 거의 닿도록 내린 후 다시 준비 자세로 올라오면 1개가 된다. 이렇게 10개 수행한다

## 2. Air Squat

양발을 어깨너비로 선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밀면서 모든 무게의 중심을 발 뒤꿈치로 향하면서 내려간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양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엉덩이가 무릎의 수평선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좋은 Squat 자세이며 이후 다시 준비자세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1개가 된다. 이렇게 10개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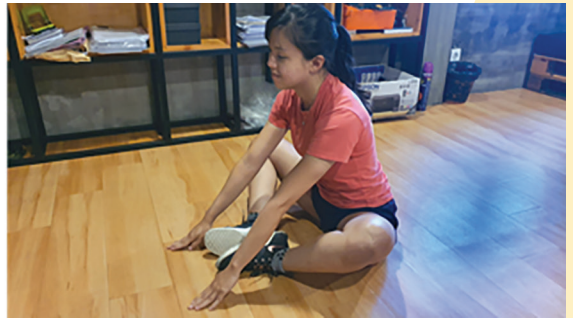
## 3. Front Lunge



준비자세는 Squat 와 마찬가지로 양발을 어깨너비로 펼쳐서 준비한다. 이후 오른발을 앞으로 밀면서 Lunge를 하고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온다. 오른발 이후 왼발도 같은 요령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12회(오른쪽 6, 왼쪽 6)를 수행한다.

## 4. Sit Up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을 펼치고 준비자세를 취한 후 상체를 올려 양손을 발 양쪽에 터치한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펼치거나 다리를 쪽 뺀 자세도 무관함. 이렇게 Sit Up을 15회 실시한다.



E2MOM 은 2분동안 위의 4가지 운동을 아래의 운동 횟수로 수행한 후 남은 시간은 휴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5회를 실시하면 온 몸에 땀이 범벅 될 것입니다. 4가지 운동을 빨리하면 할수록 설 수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이점을 고려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더욱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E2MOM 5 Rounds**

- 10 Push Up
- 10 Air Squat
- 12 Front Lunge (6-R, 6-L)
- 1 Sit Up

요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최고점을 찍으면서 주위에서 많은 지인들이 양성판정으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며 3차 예방접종 꼭 맞으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번 달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운동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pac1jch이나 WA 081 338 964 258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지 않고 있을 수 없으니깐 할 수밖에



@ Boja Farm (Bogor)

글: 권영경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끝이 서서히 보이는가 싶더니 여전히 오미크론이란 이름으로 끈질기게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확산세가 심해지자 잠시 일상을 찾아가던 사람들도 다시 소심해진 요즘이다. 머리가 복잡할 땐 단순하고 몸을 쓰는 일 만큼 좋은 것이 없지! 그래서 잠시 일상을 벗어나 보고르에 있는 한 유기농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한다.

자카르타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보고르(Bogor)에는 대도시의 먹거리(채소, 과일 등)를 제공하는 크고 작은 농장들이 다수 모여 있다. 그 중 몇몇 유기농 농장들은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일정한 비용을 받은 후 농장체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농장은 유기농 재배의 고비용을 숙박비로 충당하고 소비자는 중간 매개체 없이 생산자와 바로 연결되어 다양한 체험과 질 좋은 수확물을 얻는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전략이다.

사실 농장체험은 땅 한번 밟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도시의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이다. 도보가 발달되지 않은 자카르타의 경우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이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 아이들에게 땅 위를 걷고 흙 속에 자라는 먹거리를 직접 수확해보는 경험은 재미 그 이상을 준다.

자! 줄기 주위의 이랑을 삽으로 한 움큼 뜨고 흙 주변을 손으로 훑트려 좌우로 흔들어 보자. 그러면 땅 속에서 뿌리가 튼실하게 자란 동글동글한 고구마들이 한 줄기에 5~6개가 와그르르 떨어져 나온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이는 환호성을 지른다. 어른들에겐 충분히 익숙한 모습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5년을 산 아이에겐 고구마를 캐는 장면 하나도 그저 신기할 뿐이다. 작은 바구니엔 로메인, 상추, 고구마, 후추, 바왕다약, चेरी토마토가 등이 가득 채워졌다. 하루 이를 체험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들이 어디서 나고 자라는지, 그 귀한 먹거리들이 어떻게 수확되어 우리 밥상으로 오는지 알려 주는 것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이 단순하고 기본에 충실한 행위들로 맺은 결실은 몸속에 들어가 최선의 우리를 만든다.

꽃대가 올라온 바왕다약을 집에 가져와 심었더니 밤이 되면 하얗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달맞이꽃처럼 낮엔 지고 밤에만 개화를 한다. 그 모습이 신비로워 며칠을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 식물은 사실 감정이 없다. 싹을 틔웠으니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어 할 일을 하는 거다. 멈춰 있다는 건 그들에겐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 우리도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저 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다.



좌) 고구마를 캐는 농부, 중) 농장체험으로 얻은 농작물, 우) 후추열매

\* 바왕다약(Bawang Dayak)은 마운틴 양파 또는 인도네시아 양파라고 불리는 쪽파형태의 붉은 양파다. 바왕(Bawang)은 인도네시아어로 양파를 뜻하고 다약(Dayak)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에 사는 부족명이다. 항암효과, 혈압조절, 신장 결석 제거, 혈당 감소, 항염증, 신진대사 증가, 피부 관리 등 효능이 많아 인도네시아에선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는데 요즘엔 특히 여성 질환(유방암, 생리불순, 질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찾는 사람이 많아 졌다고 한다.

깨끗하게 씻은 바왕다약 뿌리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생으로 또는 건조해 물에 넣고 끓여 하루 2~3번 차처럼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하니 슈퍼에서 작고 붉은 인도네시아 양파를 만난다면 한번 구입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숲 속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를 키워 낸 땅이 있고, 나무를 품은 수 백 개의 씨앗들이 그 땅 아래에 있다. 이미 다 자란 나무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겠지만 아직 싹 틔우지 못한 씨앗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시작될 삶을 기다리고 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나무든 삶을 향해 기다림을 선택한 씨앗이든 그들은 모두 죽음과 삶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산다. 기다림 끝엔 시작이 있고 시작 후엔 다시 기다림이 찾아오는 것을 알기에 식물들은 죽음을 슬퍼하지도 삶을 마냥 기뻐하지도 않는 거 아닐까?

그저 묵묵히! 죽음을 삶처럼! 삶을 죽음처럼!

인간이 식물에게 이런 담담함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호들갑 떨지 않고 담담하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길 바라는 지금 이 위기의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길 간절히 빌어본다.



<<밤에만 꽃 피우는 바암다약 꽃



# 우리 조상들의 끼니 삼시세끼는 언제부터?

하루 세 끼가 익숙한 현대인.  
하지만 과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점심을 즐기게 됐을까?  
‘끼니’에 대한 우리의 고정된 관념은  
언제부터인지 살펴보자.

글. 정연식(서울여대 사학과 교수)



1 《김홍도 필 행려풍속도 병풍》 중 〈가두매점〉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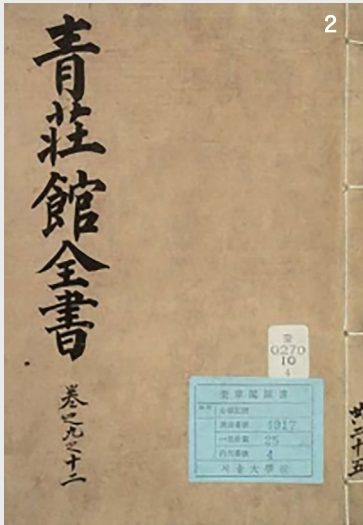
## 점심은 없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이나 저녁을 안 먹거나 못 먹는 사람이 많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전체의 4분의 1에 이를 만큼 많다. 그럼에도 ‘하루 세 끼’라는 말을 관용어로 쓰고 있다. 세 끼 관념이 머리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념에 입각하여 본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끼니는 하루 두 끼였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식사 횟수는 다양했지만 주된 식사는 조석(朝夕) 끼니라고 일컫는 아침밥과 저녁밥이었다.

그렇다면 낮에는 점심을 먹지 않았을까? 그 의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점심이란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자. ‘점심’은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나라 시기

의 문헌인 『칠수유고』의 기록 “당나라 정참이 강희유후로 있을 때 집안사람이 부인의 새벽밥을 준비하니, 부인은 그의 아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는 치장을 아직 마치지 못했고 나는 밥 먹을 시간이 아직 못 되었으니, 점심을 먹도록 하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기 초 『태종실록』에 처음 보이는 말이다. ‘점심(點心)’은 마음에 점화(點火)한다는 뜻의 말로서, 허기가 저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마음에 불이 반짝 붙을 정도로 간단하게 먹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는 간단한 다과, 간식을 ‘덴신(點心)’이라 부른다. 작은 만두 몇 개 정도의 먹을 것을 지칭하는 ‘딤섬’은 덴신의 남방 광둥어이다.



2



3

2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5홉을 먹으니 하루에 한 되를 먹는다”라는 문장이 있다. 아침과 저녁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루 두 끼만 먹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3  
 보물 《김홍도 필 풍속도화첩》 중 주막  
 ©문화재청

따라서 애초에는 낮에 먹는 밥이라는 의미가 없었다. 16세기 『목재일기』를 보면 주인공 이문건은 점심을 새벽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었다. 그런데 간단한 점심을 주로 낮에 먹었기에 그것이 낮의 식사를 뜻하는 말로 변해서 굳어진 것이다. 예전에도 점심식사를 뜻하는 오반(午飯) 또는 주반(晝飯)이라 쓰는 ‘낮밥’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점심이라는 말에 자리를 빼앗겨 사라지고 말았다. 낮의 식사를 가리키는 영어의 런치(lunch)도 알고 보면 점심과 같은 뜻의 말이다. 런치는 얇게 저민 고기 한 조각을 뜻하는 스페인어 롱하(lonja)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원래는 낮의 식사가 아니라 간단한 식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19세기 후반 미국 도시 공장 근처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토스트 정도의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나이트 런치 왜건(night lunch wagon)이 있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런치가 아침식사 뒤에 먹는 간단한 식사로 개념이 바뀌었고, 다시 정식으로 낮의 식사로 변한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 외에 아침 식사 전에 먹는 이른밥도 있었다. 이른밥은 한자로 조반(早飯)이라 쓰는데 부잣집에서 겨울에 먹었던 밥이다. 겨울에는 해가 짧아서 저녁을 먹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

어나서 아침밥을 먹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아침밥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출출할 때 간단하게 죽 따위를 먹는 것을 이른밥이라 불렀다. 이른 밥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먹는다는 뜻으로 ‘욕식(褥食)’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자릿조반’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서양의 ‘브렉퍼스트(breakfast)’도 이른밥과 개념이 비슷한 식사이다. 중세 유럽에서도 하루 끼니는 두 끼였다. 다만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밥을 먹었지만 유럽에서는 낮과 저녁에 식사를 했기에 저녁을 먹고 난 후 다음날 점심까지는 마치 단식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긴 시간을 공복으로 보냈다. 그래서 아침에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를 단식을 뜻하는 패스트(fast)와 깨뜨린다는 브레이크(break)를 붙여서 ‘브렉퍼스트’라 부른 것이다.

### 끼니는 그때그때 달라

우리나라에서 끼니는 상황에 따라 달랐다. 여름에는 해가 길고 또한 농번기이기도 해서 하루 두 끼에 간단한 낮점심이 덧붙여졌다. 그러므로 대개 춘분 전후부터 추분 전후까지는 세 끼를 먹었는데 낮에 중간에 먹는 양이 매우 적어서 굳이 말하자면 2.5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물  
《김홍도 필 풍속도화첩》  
중 점심  
©문화재청

5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작업 완료 후 식사 모습  
©국립무형유산원

세종 때 사학(四學)의 생도들에게도 해가 긴 여름에는 점심거리를 지급하고 해가 짧은 겨울에는 불을 밝힐 등유(燈油)를 지급했다 한다. 또 끼니 수는 활동량에 따라서도 좌우된다. 활동량이 많은 여름 농번기에는 간단한 점심을 포함해 세 끼를 먹고 활동량이 적은 겨울 농한기에는 두 끼만 먹었다. 여행객도 먼 길을 가다 보면 쉽게 허기가 지므로 냇가 그늘 또는 주막에서 낫밥을 먹었고, 왕이나 고위 관원들도 먼 길을 갈 때에는 주정소에서 든든히 한 끼를 챙겨 먹었다.

지금은 부자나 가난뱅이나 하루 세 끼 먹기는 마찬가지라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 끼를 먹기는 어려웠고, 관에서도 높은 관직에 있는 관원에게만 점심을 제공하여 지위에 따라서도 끼니 수가 달랐다. 조선 전기에는 일정 품계 이상의 관원에게는 여러 명목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점심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나라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자 16세기 전조 때부터는 일부 고위 관원을 제외한 일반 관원들은 점심을 굶든지 각자 해결하라고 하여 계집종들이 관아로 점심상을 나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세 끼라 하더라도 낮점심이 간단한 소식이라서 2.5끼 정도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온전히 세 끼를 먹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 예전에는 농산물 생산력이 미약해서 모자라는 식량으로 세 끼를 먹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식량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세 끼를 온전히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매우 많아졌다. 조선시대에는 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 지금처럼 바쁘게 살지 않았고 에너지 소모도 적어서 많이 먹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일거리가 많아지고 활동량이 많아진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많이 먹어야 한다. 셋째로 해가 긴 여름 농번기와 해가 짧은 겨울 농한기의 구분이 사라졌다. 전기조명의 발달로 해가 길고 짧은 것도의 의미가 없어졌고, 농가인구는 전체의 5%에도 못미치므로 여름, 겨울의 끼니 수가 다를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결국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끼니는 두 끼로서 상황에 따라 낮에 간단한 점심을 먹기도 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가 20세기에 접어들어 도시 노동자의 증가로 세 끼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되고 하루 세끼가 고정된 관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역시 20세기 후반부터라고 봐야 할 것이다.



## 스마트 시대의 질문과 답변



이재민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jakartafirst1@gmail.com](mailto:jakartafirst1@gmail.com)



“선생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그때는 무얼 하시며 지내셨어요?”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 나도 잠시 쉬어야 할 시간인데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을 스마트하게 보고 있던 제자 녀석이 내 시선과 마주치자 별 싱거운 질문을 다 해온다.  
“가만, 가만 있어봐. 선생님이 생각 좀 해보자.” 스마트폰이 없던 내 어린 시절, 집 대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가면 친구들이 늘 있었어. 그곳에서 얼음땡, 다방구, 망까기, 오징어, 고무줄, 팔씨름, 닭싸움, 달리, 땅따먹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숨바꼭질, 말뚝 박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술래잡기,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해지도록 하면서 놀다가 저녁 먹고 잠이 들었지. 다 놀지 못한 아쉬움에 꿈에서도 골목에 모여 또 놀았어. 골목엔 늘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대문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 튀어나오는 친구가 있었고 대문 안에서 이름이 불리면 튀어나가는 내가 있었어. 정말 심심할 틈이 없었어. 계속 놀아야 했으니까. 이름을 부르고 이름이 불려야 했으니까.

스마트폰이 없던 내 학창 시절, 교실과 운동장에는 친구들이 늘 있었어. 그곳에서 책 읽고 밥 먹고 떠들고 보고 듣고 웃고 울고 느끼고 꿈꾸고 바라고 오해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던 가로등 켜진 거리를 따라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길엔 늘 친구들이 있었어. 잘 들어가라고 손 흔들어주는 친구가 있었고 잘 자라고 웃어주는 친구가 있었어. 정말 외로울 시간이 없었어. 계속 꿈꾸어야 했으니까. 손 흔들고 웃어주어야 했으니까.

스마트폰이 없던 내 청춘은 꽃이 피면 천지에 꽃들이 만발했고 녹음이 깔리면 하늘을 가렸고 낙엽이 지면 땅을 덮었고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겨울왕국처럼 하얗게 쌓였어. 적당이가 없던 늘 넘쳐나던 벽찬 때였지. 사랑과 우정과 삶에 대해서 노래와 이야기와 세상에 대해서 설 틈이 없었어.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지 말라는 벗의 말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그런 식으로 글을 쓰지 말라는 후배의 말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여자의 말에 또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스마트해질 시간이 없었어. 가슴이 늘 울렁거렸으니까. 변명하고 후회하고 아파해야 했으니까.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이 있으니 어디서든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 볼 수 있고 어디서든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으면 언제든 들을 수 있고 어디서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참 스마트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에서 스마트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인간이니? 폰이니? 폰이 스마트한 것 맞지? 폰이 똑똑해지니 우리는 손과 눈만 바빠지고, 옛날보다 더 심심하고 외로워진 것 같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짱가’ 라는 로봇이 있었어. 그 ‘짱가’가 스마트폰의 예언이자 은유라고 생각해. 지금은 어디서든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혼자만 노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어디서든 골치 아프지 않고 심심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어디서든 김빠진 사이다처럼 늘 심심하고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구나. 생각해 봤는데 “애들아, 스마트 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가슴이 짠 하도록 그립고 아쉽던 선생님의 청춘 시절이야기를 다음에 기회 닿으면 또 얘기해 줄게.”





## 미낙 까슈 뿌띠 Minyak kayu putih

김선혜(JIKS 국어과교사,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로 파견 근무를 나오기 전까지 내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에 나오는 발리섬이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것 정도?

대체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도 인도네시아에 대해 잘 몰랐고 책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생각보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다룬 글이 많지 않아서 간접경험도 별로 못해본 채로 인도네시아에 정착하게 되었다.

생활하면서 내가 느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지만, 정말 친절하게 웃고 있지만, 일처리가 빠르지 않았고 빈틈이 많았다. 텔콤셀 매장에 가서 핸드폰을 개통할 때도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고 마트에서 물건 계산할 때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한국의 대형마트 계산대 모습과 비교했을 때 울컥울컥 화가 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물건 값이 제대로 안 찍혀 있으면 계산대 직원이 직접 매장으로 들어가 그 물건을 찾고 또 직원들끼리 킁킁 대고 웃고 카드 계산 한번 하려면 크레딧 카드인지 데빗 카드인지 묻고 루피아인지 원화인지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건 가격을 확인하면서 입력하고...

안 그래도 되는데 천천히 장바구니에 물건 담아주고, 대략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나의 인내심은 너털너털해질 때가 많았다.

이렇게 천천히 일이 진행되어서 완벽한가 하면 가격 실수도 종종 있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잘못 찾아주고도 맞다고 우기고 엉뚱한 색깔로 찾아오고 할 때가 있으니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고구마 백 개쯤 먹은 듯 답답한 일처리에 혼자 속을 끓이곤 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더욱 이런 생각들은 깊어져 갔다. 운전 기사에게 오늘 가야 할 곳을 말해주고 이 장소들을 아는지 물어봤더니 물론이라면서 환히 웃었는데 3곳 다 정확히 간 곳이 하나도 없었다든지, 자카르타 국제공항에서 수하물 처리가 하도 늦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늦었다고 하소연했더니 직원이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 고 두 손 모아 인사했다든지 하는 에피소드를 듣고 있자면 ‘내가 이상한 나라에 정착했구나, 보통의 성질로는 살기 어렵겠구나, 이 나라 사람들과는 같이 일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만 많아졌다.

인도네시아 자연 환경은 멋지고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면서 투덜땀던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은 뒤부터다.

그날은 자카르타의 예쁜 카페를 찾아서 딸들과 함께 모처럼 나들이를 나갔을 때다. SNS에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카페로, 카페 내부에 나무도 있고 아름다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젊은 분위기의 카페. 그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난 뒤 집에 오기 위해 택시를 불렀는데 그날 따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다.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좀 덥다고 느끼며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쓰러졌다. 말 그대로 바닥에 픽 쓰러진 것이다. 더위를 먹었는지 어지럼증이 왔는지 정말 바닥에 머리를 쿵 박을 정도로 쓰러졌다.

그때의 내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생각이 멈춘 듯 뇌 회로가 멈춰버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직 인도네시아 지역 감각도 없던 때라서 그 지역이 어딘지 자세히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인도 없고 위급한 순간에 부를 사람이 생각나지도 않았다.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은 오만 가지 생각들로 가득했다.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할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병원에 가면 해결할 수는 있을까?’

‘당장 딸을 차에는 어떻게 태우지?’

그때 쇼핑몰 문 앞에서 있던 경비원이 달려와서 딸에게 정신차리라고 흔들며 깨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급히 뭐라고 외쳤다. 그랬더니 야외 식당 직원과 사장님이 뛰어나오고 이어서 상가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몇 뛰어 나왔다.



내가 말릴 틈도 없이 그 사람들은 내 딸을 안아서 식당 의자들을 붙여 눕히고 옷을 편하게 입히고 계속 말을 걸었다. 그리고 코와 목에 계속해서 뽀갸를 발라주었다. 어떤 사람은 연신 손발을 주물러주고 계속 머리 쪽과 코에 뽀갸를 바르면서 숨을 쉬라고 숨을 쉬라고 외쳤다.

아이가 숨을 좀 쉬는 것처럼 보이자 식당 직원들은 주방으로 달려가서 마실 것을 들고 나와서 천천히 마시게 했고 계속 손발을 주물러 주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이 소지품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다. 혼자 시간이 멈춘 듯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멍했다. 뭘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고 ‘저렇게 부산 떨어도 되는 건가, 아이를 그들 손에 맡겨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불안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누군가가 병원에 가라고 택시를 불러주고 아이를 택시 안에 잘 눕혀 주었다. 그리고 내 손에 무슨 약병처럼 생긴 것을 쥐어주고 가지라고 했다. 내가 인도네시아어를 잘 모르자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 약병의 액체를 코에 바르고 숨을 쉬는 동작을 반복했다. 그리고 차가 떠나는 동안에도 계속 아이에게 숨을 크게 쉬라고 금방 괜찮아진다고 소리치고 있던 사람들.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마뜩잖게 느껴져서 더 그랬을 수도 있다.

택시 안에서 내 손에 쥐어진 약병을 봤더니 초록 색에 든, 무슨 장난감 약병처럼 생겼는데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액체처럼 보였다. 무슨 성분인지 알 수도 없어 보이는 이 액체를 아이에게 계속 발라줘도 되는지 판단이 안 섰지만 그 사람들이 하도 간절히 말한 것이 신경 쓰여서 코와 목에 발라주고 숨을 쉬라고 얘기하면서 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아이가 천천히 정신을 차렸고 정말 이제 괜찮은 것 같다고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주말에 병원 응급실에 가도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아이가 진짜 괜찮은 건지 조심스러웠지만 일단 집에 가서 상태를 보기로 했다. 아이는 집에 가서 잠시 안정을 취한 뒤부터는 밥도 잘 먹고 평소와 다른없는 컨디션을 회복했다. 잠시 더위를 먹은 것 같았다.



그때서야 그분들이 준 약병이 뭔지 찾아볼 정신이 생겼다. ‘미낙 까유 뿌띠(Minyak kayu putih)’라고 쓰여 있는 초록색 병. 알고 보니 유칼립투스 기름으로 천연성분이라서 인체에 해가 될 성분이 전혀 없는 거였다.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오일이어서 가격도 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약을 여기저기 아플 때마다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풀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인 허브 냄새가 나고 몸에 바르면 발한 효과가 있어서 후끈해지는 기분이 든다. 실제로 약 효능을 찾아보면 두통, 근육통, 벌레 물렸을 때, 몸살감기, 체했을 때 등 진짜 광범위한 효능을 자랑하고 있다. 더욱 믿음이 가는 것은 예전에 한국에서 호랑이 연고로 통했던 연고의 주성분과 이 미낙 까유 뿌띠의 주성분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Cajuput oil이 주성분으로 성분 자체에 소염제, 진통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알고 나면 더 보인다고 이 약을 알게 된 뒤에 자세히 보니 마트나 약국 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오일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 뒤로 믿음이 생긴 나도 두통이나 근육통, 벌레 물린 곳에 자주 바르곤 하는데 특히 근육통에 효과가 좋은 것 같다. 피부가 가렵거나 아플 때도 자주 바르곤 하는데 그때마다 피부가 진정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진다.

지금 내 가방에는 상비약처럼 이 미낙 까유 뿌띠가 들어있다. 그리고 아이들 가방에도 하나씩 챙겨주고 피부에 바르라고 안내해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만병통치약 전도사가 된 기분이다. 그리고 한국 갈 때 꼭 지인들에게 선물로 갖다 주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약을 소개해주고 있다. 진짜 효과 좋다고. 우리 아이가 기절했을 때 이 약 바르고 좋아졌다고.

누가 보면 약장수 단골 멘트 같을 수도 있지만 이 약을 볼 때마다 인도네시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 뭉클한 기분이 든다. 그때, 나 혼자 멍하니 서있을 때 득달같이 달려와 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 미낙 까유 뿌띠 오일을 바를 때마다 고맙고 또 고맙다. 피부에 퍼지는 알싸한 그 향처럼 오래오래 잊히지 않을 장면이다. 누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내 손에는 이 약이 어김없이 들려 있을 것 같다.

음식이 좀 늦게 나오면 어떡라!

나는 이미 인도네시아의 달콤한 얼굴을 보고야 만 것이다.

그 순수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 내 손에 쥐어준 그 만병통치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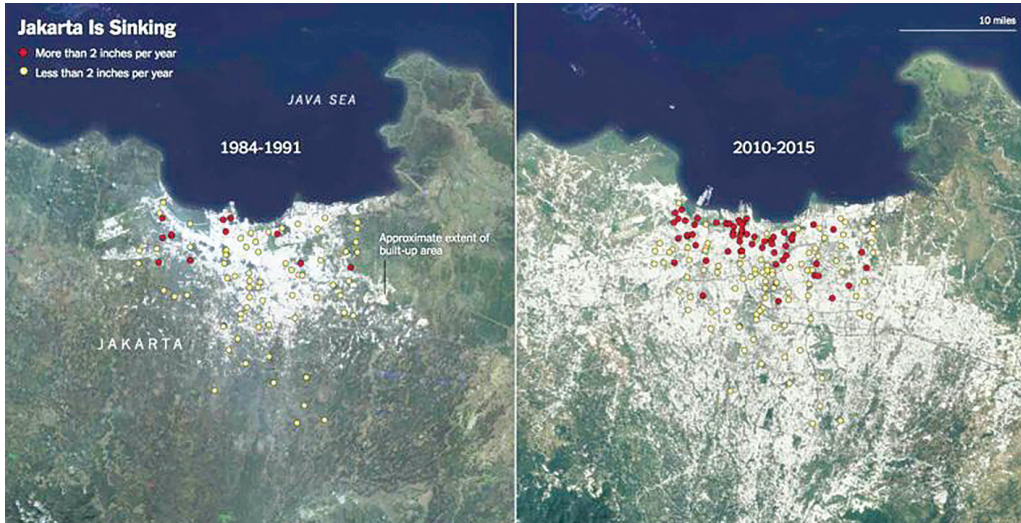
나도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곤 한다.

“여기는 인도네시아잖아? 마음의 평화를 가져!”



# 위기의 자카르타

글: 임서영 (JKS, 10학년)



매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빙하가 녹으면서 많은 해안 도시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홍수 위험에 처해있다. 3,200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3mm씩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증가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그로 인해 늘어난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여 바다가 이전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어서 일어난 현상이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자카르타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수만 명의 현지인에게 큰 해를 입혔다. 2007년에 일어난 홍수는 지금까지도 최대 피해로 기록되는 홍수로, 당시 도시의 70% 이상이 물에 잠겼었다. 급속한 도시화, 토지 이용 변

화, 인구 증가는 자카르타의 침몰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이 Landsat 사진은 자카르타의 30년 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Ciliwung과 Cisadane 강의 주변 지역에 산림 및 기타 식생을 광범위하게 땅이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다.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대도시 지역의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고위험 범람원으로 몰려들었다. 또한 많은 하천 수로와 운하가 좁아지거나 사람들의 지속적인 쓰레기 투척으로 인해 막혀 더욱 범람하기 쉬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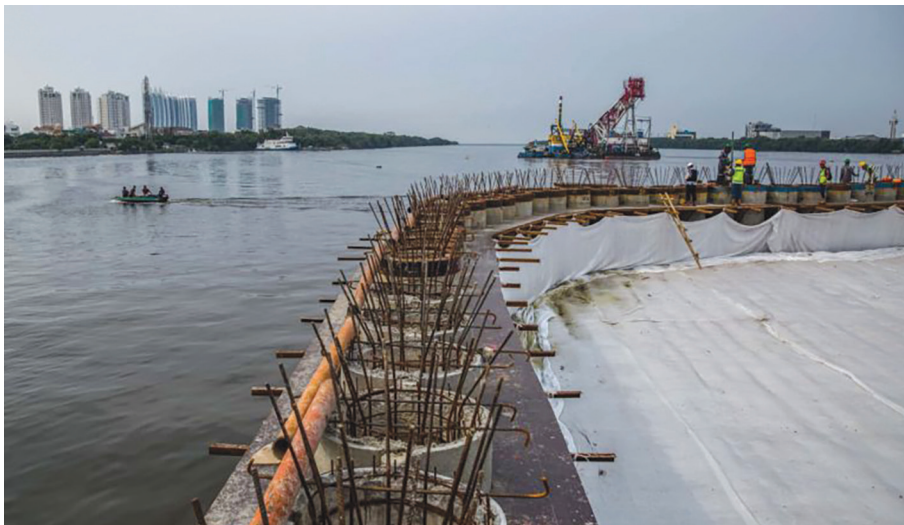
사진의 왼쪽 부분은 1990년에 촬영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침몰에 대비하여 Jakarta Bay의 얕은 수면에 인공 토지와 새로운 개발이 시작되



었다. NASA에 의하면 Landsat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해안을 따라 최소 1,185헥타르(5제곱마일)의 새로운 토지를 건설했다고 한다. 화동 사범 대학의 원격탐사 과학자인 Dhritiraj Sengupta는 초지의 대부분이 고급 주거 개발과 골프 코스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Sengupta는 이러한 개발은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공 섬은 모래와 토양이 쉽게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서 압축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라앉는 유형의 토지 중 하나이다. 위성과 지상 기반 센서는 북부 자카르타의 일부가 연간 수십 밀리미터 씩 가라앉는 것을 기록했는데, 새로운 인공 섬에서는 그 비율이 연간 80mm까지 치솟았다.

2015년, 자카르타는 National Capital Integrated Coastal Development라는 2억 2,200만 달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 계획은 최대 30km에 달하는 도시 외곽에 거대한 방파제를 설치하고, 17개의 새로운 인공 섬을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환경, 경제 및 기술 문제로 인해 건설이 지연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도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카르타의 안전을 완전히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매년 심각해지는 해수면 상승과 같은 환경 문제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 소재지 위치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으로 옮기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claggie.com/journal/2020/1/6/how-to-help-flooding-in-jakarta>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earthobservatory.nasa.gov%2Fimages%2F148303%2Fas-jakarta-grows-so-do-the-water-issues&psig=AOvVaw14ZBod\\_Df8ANq\\_9VsP1J14&ust=1638404921981000&source=images&cd=vfe&ved=0CAsQjRxqFwoTCiDi1v-twfQCFQAAAAAdAAAAABAJ](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earthobservatory.nasa.gov%2Fimages%2F148303%2Fas-jakarta-grows-so-do-the-water-issues&psig=AOvVaw14ZBod_Df8ANq_9VsP1J14&ust=1638404921981000&source=images&cd=vfe&ved=0CAsQjRxqFwoTCiDi1v-twfQCFQAAAAAdAAAAABAJ)

## 인도네시아 계약법(Hukum Perikatan)

인도네시아 계약법은 민법전 (Kitab Undang-Undang Perdata/KUH

Perdata) 제3권 제1233조부터 제1864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민법전은 1847년 4월 30일 당시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던 네덜란드 식민정부가 공포했고 1848년 1월 1일부터 발효했으며,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포한지 7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847년 식민통치자가 제정 공포한 네덜란드어 민법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만 해서 그대로 쓰고 있다. 식민통치자가 175년 전에 제정한 민법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민법전을 개정하려는 강한 의지나 실질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한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은 상황이다. 민법은 개인과 사법인 등 사적인 법률주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친족, 혼인, 상속 관계와 거래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인 과 사법인의 의무와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으며, 자유와 평등의 이념의 표현으로 사적인 소유권 보장 원칙, 사적인 자치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민법의 3대 원칙으로 보아 왔으나, 사적 재산권의 절대 자치로 인한 공익의 침해 및 경제적인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적인 자치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민법전은 로마법적 편별법을 따라 제1권은 사람에 관하여, 제2권은 물건에 관하여, 제3권은 계약에 관하여, 제4권은 증명과 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은 사람 간의 관계와 법인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친구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 종교단체와 소속멤버의 관계도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권리 의무의 관계란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지로 성립

되는 계약과 당사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 때문에 자동으로 발효하는 계약이 있으며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계약법의 기본법인 민법은 사람이 엄마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엄마 배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유산을 상속받는 자는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인의 채무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 민법전 제3권 계약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계약법의 원칙

민법전에 규정해져 있는 계약법의 원칙은 i). 계약 자유의 원칙, ii). 합의의 원칙, iii). 신의의 원칙, iv). 구속력 발생의 원칙, v). 지위 대등의 원칙, vi). 형평성의 원칙, vii). 확실성의 원칙, viii). 도덕성의 원칙, ix). 적절성의 원칙, x). 관행의 원칙이 있다.

#### 1.1. 계약 자유의 원칙

민법전 제1338조는 “적법하게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내용, 이행 및조건, 계약의 형태 (구두 혹은 서면 계약)등을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계약자유 원칙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정한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 를 들면 취업이 절실한 근로자와 회사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의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계약자유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정법과 사회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1.2. 합의의 원칙

계약당사자 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결정된 합의를 뜻하며 강제 혹은 허위로 체결된 계약은 해약 사유에 해당된다.

### 1.3. 신의의 원칙

계약당사자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호 신의의 원칙이므로 양 당사자는 계약에 자신을 구속시키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

### 1.4. 구속력 발생의 원칙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내용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 적절, 윤리, 도덕 및 법규적으로 구속된다는 사실이다. 계약서에 상호 합의로 포함시킨 내용일지라도 내용이 상기한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계약 내용을 실효시킬 수 있다.

### 1.5. 지위 대등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은 민족, 피부색갈, 종교, 사회적인 지위, 빈부 혹은 지식의 차이 등 여하한 이유에 관계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구매업체와 납품업체 간, 부동산 개발업체와 매입자 간, 프로젝트 오너와 시공업체 간, 여하한 관계일지라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불평등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계약이 실효시킬 수 있다.

### 1.6. 형평성의 원칙

계약이 내용이 계약 당사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되고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 ‘를 들면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와 납품하는 업체 간에 원부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가 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원부자재 대금 지불 시한을 업계의 관행에 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길게 잡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러한 계약은 공정거래 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실효시킬 수 있다.

### 1.7. 확실성의 원칙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확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계약 내용이 애매모호한 계약은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 1.8. 도덕성의 원칙

계약의 내용이 부도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도덕의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지의 도덕이 기준이 된다. “예” 를 들면 계약결혼은 서양인의 도덕 기준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인도네시아인의 도덕기준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결혼 계약서를 체결한 상대방이 돈만 받고 계약결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인도네시아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 1.9. 적절의 원칙

적절의 원칙은 민법 제1339조에 “계약은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 뿐 만아니라 그 내용의 성질 상 그 내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법률, 관행, 대등 혹은 공정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내용이어야 한다”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음 호에 계속)

# 먹고 사는 이야기

글: 홍석영 편집장



어릴 적부터 ‘개코’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코로 냄새를 맡으며 상태와 식자재를 맞추는 버릇이 있다.  
눈으로 상태 확인과 머리로 상상을 더해 위생까지 살피는 편이라 찻찻하면 피해간다. 다행히 식탐이 있는 편이라 여전히 음식을 보면 덤빈다. 미식과 대식을 동시에 한다는 귀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

아침에 ‘기대수명 10년을 늘리는 식단’ 이란 칼럼을 읽다가 일찍이 엄마와 떨어져 육가공품과 친하게 지내 버린 내 아이들이 생각나서 미안했다. 우리 아이들의 수명이 줄었다는 책임.

음식이 약도 되고 병도 된다.

이 나이에도 종종 육즙 터지는 한국 소시지나 스편이 당길 때가 있다. 여긴 그 별 것 아닌 게 손이 닿을 수 없어 안타깝다.

여기에 사는 불만 중 하나는 걸을 만한 길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흔하게 널렸으나 만족을 주는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맛있다’ 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우리말에 ‘맛있다’ 는 맛이 ‘있다’ . ‘없다’ 로 나뉜다는 라는 특이점에 대해 쓴 글이 생각난다. 우리는 취향과 기준이 확실하다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다.



나는 식자재를 아무리 조금 사도 한 번에 다 먹지 못하는 1인 가족이다. 썩어 버려지는 것이 싫어서 여러 번 나눠 먹을 자신이 없으면 사지 않게 되고, 그러다보니 간편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10분 먹자고 1시간을 쓰는 게 아깝기 때문이다.

어릴 적, 엄마가 “내일 도시락 반찬 뭘 싸줄까?” 물어볼 때 난 맨날 비슷한 걸 싸주면서 왜 자주 물을까? 이상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보통 앞에 앉은 아이가 되돌아서 4명이 같이 도시락을 먹곤 했는데, 네 명이 각기 주로 싸오는 게 겹치지 않고 집마다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다.

깨끗하고 세련된 부엌에서 사각사각 칼질을 하고 맛있게 조리되는 과정과 레스토랑 같이 담기는 그 영상 속 척척 음식을 해내는 주부를 보면서 나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을 지나 능력있는 그녀가 질투난다. 난 아직도 주방 앞에만 서면 만연 대리처럼 늘 바쁘기만 하다. 조리 절차를 하나라도 생략해서는 그 맛을 보장할 수 없고 다듬고 지지고 볶는 부엌이 영상 속 부엌처럼 항상 빛이 나게 깔끔할 수가 없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커피, 커피믹스의 존재는 커피, 설탕, 프림의 들,들,들 마저도 스푼을 쓰지 않고 규격화하니 속도와 맛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안성맞춤이다.

얼마 전 S전자에서 비스포크 큐커(전기오븐, 전자렌지, 에어프라이어 등의 기능을 합친 조리기구)를 출시하면서 밀키트와 간편식을 고를 수 있게 큐커 식품관을 오픈했다. 따로 구매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상품의 연계성을 고려한 ‘한방에’ 시스템이다.

새로 지은 집들에서 썩박한 구성의 최첨단 부엌을 보면 하얀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아줌마보단 배달을 잘 시킬 것 같은 부잣집 젊은 사모님이 떠오르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 최첨단 옵션이 빌트인 된 집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의 것으로 생경함이 느껴진다. 나만 그런가?

어떤 젊은 주부가 벽보고 설거지 하지 않게 해달라는 캠페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어딜 보고 설거지 할 수 있는 구조라야 좋을까?

밥상을 들고 다니던 때에 어린 시절을 보내서였을까? 요리하는 엄마와 눈을 마주치길 원하지도 않았고 설거지를 하는 엄마의 ‘소외’를 생각해 보질 못했다. 엄마는 밥상 끄트머리에 앉았다가, 온 가족의 식사 심부름을 하는 것이 당연하던 식사 시간 풍경이 떠오른다. 밥상에서 ‘아줌마’ 식으로 앉기(한쪽 무릎을 꺾어 세우고 금방 일어나기 쉽게)의 유래도 그래서란다.

## 2022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2.1.1. ~ 2.25.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3	부회장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5,000	
4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5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6	이사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7	이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000	
8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 2022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2022년 2월/가나다순

번호	성명	금액(IDR)
867	현병선	300,000
868	김만선	300,000
869	문해정	300,000
870	황준	600,000
871	이원만	300,000
872	송재선	300,000
873	길병완	300,000
874	강선희	300,000
875	강승원	300,000
876	강인한	300,000
877	강장팔	300,000
878	강한나	300,000
879	고형돈	300,000
880	곽민영	300,000
881	곽혜지	300,000
882	구한희	300,000
883	권중	300,000
884	권태균	300,000
885	김가람	300,000
886	김경국	300,000
887	김경우	300,000
888	김경원	300,000
889	김경태	300,000
890	김광신	300,000
891	김금재	300,000
892	김기원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893	김대호	300,000
894	김도윤	300,000
895	김도형	300,000
896	김도환	300,000
897	김동수	300,000
898	김문선	300,000
899	김미소	300,000
900	김미숙	300,000
901	김미식	300,000
902	김미영	300,000
903	김미현	300,000
904	김미혜	300,000
905	김민호	300,000
906	김병권	300,000
907	김병래	300,000
908	김보람	300,000
909	김보영	300,000
910	김상진	300,000
911	김상태	300,000
912	김성근	300,000
913	김성언	300,000
914	김수완	300,000
915	김승영	300,000
916	김영수	300,000
917	김영희	300,000
918	김옥렬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919	김용훈	300,000
920	김유식	300,000
921	김은영	300,000
922	김은희	300,000
923	김인선	300,000
924	김정연	300,000
925	김정인	300,000
926	김정훈	300,000
927	김종문	300,000
928	김준석	300,000
929	김중하	300,000
930	김지연	300,000
931	김지인	300,000
932	김진한	300,000
933	김진희	300,000
934	김태성	300,000
935	김태수	300,000
936	김태현	300,000
937	김판갑	300,000
938	김판석	300,000
939	김해성	300,000
940	김해숙	300,000
941	김해영	300,000
942	김현명	300,000
943	김현숙	300,000
944	김현진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945	김형근	300,000
946	김효성	300,000
947	김희숙	300,000
948	나진희	300,000
949	남석현	300,000
950	남호성	300,000
951	노정식	300,000
952	도경태	300,000
953	류재상	300,000
954	류재철	300,000
955	맹홍재	300,000
956	문수정	300,000
957	문영일	300,000
958	문영철	300,000
959	문제민	300,000
960	문향미	300,000
961	민승현	300,000
962	박건우	300,000
963	박경하	300,000
964	박근직	300,000
965	박노준	300,000
966	박미경	300,000
967	박봉수	300,000
968	박선종	300,000
969	박선희	300,000
970	박수영	300,000
971	박영석	300,000
972	박영화	300,000
973	박용규	300,000
974	박용상	300,000
975	박우동	300,000
976	박원용	300,000
977	박인수	300,000
978	박재근	300,000
979	박정태	300,000
980	박종철	300,000
981	박지현	300,000
982	박진석	300,000
983	박찬식	300,000
984	박현옥	300,000
985	박현옥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986	박호경	300,000
987	박효성	300,000
988	박흥구	300,000
989	방재웅	300,000
990	배은진	300,000
991	배재광	300,000
992	배주식	300,000
993	배지현	300,000
994	배형숙	300,000
995	서은해	300,000
996	서재우	300,000
997	서진규	300,000
998	서학영	300,000
999	서현옥	300,000
1000	서현천	300,000
1001	소윤희	300,000
1002	손문기	300,000
1003	손석기	300,000
1004	손인정	300,000
1005	손정욱	300,000
1006	손혜연	300,000
1007	손혜정	300,000
1008	송영한	300,000
1009	송은주	300,000
1010	송정민	300,000
1011	신경아	300,000
1012	신광사	300,000
1013	신영교	300,000
1014	신정용	300,000
1015	신헌섭	300,000
1016	심광섭	300,000
1017	안미옥	300,000
1018	안성태	300,000
1019	안용식	300,000
1020	안주형	300,000
1021	안준희	300,000
1022	양수환	300,000
1023	양재영	300,000
1024	양지희	300,000
1025	양혜경	300,000
1026	엄윤주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1027	오명희	300,000
1028	오상훈	300,000
1029	오소영	300,000
1030	오순례	300,000
1031	오승현	300,000
1032	오승호	300,000
1033	오지연	300,000
1034	우학진	300,000
1035	유성은	300,000
1036	유원준	300,000
1037	유제석	300,000
1038	유환규	300,000
1039	윤미선	300,000
1040	윤병호	300,000
1041	윤보미	300,000
1042	윤영실	300,000
1043	윤외금	300,000
1044	윤용섭	300,000
1045	윤일송	300,000
1046	이건무	300,000
1047	이경미	300,000
1048	이경수	300,000
1049	이광락	300,000
1050	이국재	300,000
1051	이국태	300,000
1052	이기석	300,000
1053	이기성	300,000
1054	이기준	300,000
1055	이남식	300,000
1056	이동헌	300,000
1057	이명숙	300,000
1058	이미숙	300,000
1059	이미현	300,000
1060	이병룡	300,000
1061	이복순	300,000
1062	이상아	300,000
1063	이상진	300,000
1064	이선광	300,000
1065	이선순	300,000
1066	이선신	300,000
1067	이성화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1068	이성훈	300,000
1069	이성훈	300,000
1070	이소현	300,000
1071	이수경	300,000
1072	이순	300,000
1073	이승열	300,000
1074	이시진	300,000
1075	이신구	300,000
1076	이안희	300,000
1077	이영일	300,000
1078	이은경	300,000
1079	이은숙	300,000
1080	이은진	300,000
1081	이재성	300,000
1082	이재운	300,000
1083	이재웅	300,000
1084	이정란	300,000
1085	이정임	300,000
1086	이정휴	300,000
1087	이종민	300,000
1088	이종원	300,000
1089	이지윤	300,000
1090	이진삼	300,000
1091	이충완	300,000
1092	이충원	300,000
1093	이하나	300,000
1094	이하늘	300,000
1095	이해숙	300,000
1096	이행권	300,000
1097	이혜영	300,000
1098	이희영	300,000
1099	임다영	300,000
1100	임숙희	300,000
1101	임양진	300,000
1102	임옥하	300,000
1103	임은숙	300,000
1104	임채연	300,000
1105	임철진	300,000
1106	임현진	300,000
1107	임희옥	300,000
1108	장경원	300,000
1109	장석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1110	장수민	300,000
1111	장용	300,000
1112	장운익	300,000
1113	장주현	300,000
1114	장효	300,000
1115	전광진	300,000
1116	전동혁	300,000
1117	전수정	300,000
1118	전신성	300,000
1119	전우주	300,000
1120	전진출	300,000
1121	정강민	300,000
1122	정경선	300,000
1123	정경영	300,000
1124	정보연	300,000
1125	정성우	300,000
1126	정성희	300,000
1127	정숙자	300,000
1128	정승화	300,000
1129	정아영	300,000
1130	정안순	300,000
1131	정유진	300,000
1132	정지환	300,000
1133	정필현	300,000
1134	조수진	300,000
1135	조용주	300,000
1136	조우진	300,000
1137	조은아	300,000
1138	조재천	300,000
1139	조재호	300,000
1140	조준오	300,000
1141	주인옥	300,000
1142	주혜경	300,000
1143	주홍식	300,000
1144	진대한	300,000
1145	진준하	300,000
1146	채명숙	300,000
1147	천호봉	300,000
1148	최낙윤	300,000
1149	최대호	300,000
1150	최문정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1151	최문희	300,000
1152	최성혁	300,000
1153	최성희	300,000
1154	최은영	300,000
1155	최은주	300,000
1156	최은희	300,000
1157	최인영	300,000
1158	최재혁	300,000
1159	최정아	300,000
1160	최진혁	300,000
1161	최창우	300,000
1162	최태일	300,000
1163	최해순	300,000
1164	필성희	300,000
1165	하재희	300,000
1166	한상문	300,000
1167	한상희	300,000
1168	한선희	300,000
1169	한송현	300,000
1170	한현봉	300,000
1171	한호윤	300,000
1172	함태욱	300,000
1173	허묘녀	300,000
1174	허세훈	300,000
1175	허정욱	300,000
1176	홍하림	300,000
1177	황명동	300,000
1178	황선기	300,000
1179	황원금	300,000
1180	황유미	300,000
1181	황재일	300,000
1182	안진호	300,000
1183	강윤석	300,000
1184	강기석	300,000
1185	이국청	300,000
1186	김주신	300,000
1187	권진열	300,000
1188	석웅치	300,000
1189	윤승욱	500,000
1190	이지선	300,000
1191	이성국	300,000



## [한인의 외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 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 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 대기)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 전화.....001,008

##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 6555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1. 12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1361-472 1735]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2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4-5469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1	땅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3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4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 협력하는 한인사회

# 함께라면 COVID-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신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랩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학교	5579	440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야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근)	0811 850 212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소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 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 (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umchris@gmail.com (021) 2245 5879

**woori**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뎀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증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미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끌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군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http://dailyindonesia.co.kr)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종교 단체

<기독교>

교민교회	5576 7508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너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등 (지역번호 022)

반등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등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안인뉴스

## 광고문의

# 521-2515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당분간발리한인회로연락  
주시기바랍니다

<발리 한인회 주소>

Jl. Kutat Lestari Gg. 6 No. 2A, Sanur,  
Kecamatan Denpasar Selatan  
Kota Denpasar Bali 80227  
사무실 전화 번호 0361 472 1735  
한인회 사무국장/영사협력원  
이태우 0812 3793 9452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 이용안내

###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BE  
THE FIRST  
MOVER**



**KMK GROUP**